

연구보고서 2002-02

대전 근교농촌 현대화 중·장기 발전방안 (2003~2010년)

임성복

 대전발전연구원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

(2003~2010)

연구위원 임성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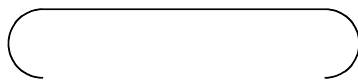
제1부 총론

제1장 과업수행의 개요	8
제1절 과업수행의 배경	8
제2절 과업수행의 목적	9
제3절 과업의 범위와 방법	9
1. 과업의 범위	9
2. 과업수립의 방법	9
제2장 대전농업의 여건과 현황	11
제1절 대전의 농업여건	11
1. 대외적인 여건	11
2. 국내적인 여건	11
3. 대전농업의 특수여건	12
제2절 대전의 농업 현황	13
1. 농업기반의 현황	13
2. 작물재배의 현황	16
제3장 대전농업의 발전방향 및 전략	30
제1절 대전농업의 발전방향	30
제2절 대전농업 발전전략	32
1. 농업기반의 정비·강화	32
2. 농업생산력 증대	33
3. 농산물 유통체제 정비	35
4. 미래를 향한 농업기술개발	36

제2부 부문별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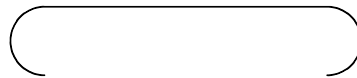
제4장 권역별 발전방안	39
1. 동 구	39
2. 중 구	40
3. 서 구	41
4. 유성구	42
5. 대덕구	43
제5장 세부부문별 발전방안	44
제1절 명품·특작생산 증대	44
1. 지역특산물 육성과 브랜드화	44
2. 시설채소 생산단지 확장 및 화훼단지 조성	47
제2절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	55
1. 친환경 농업의 범위	55
2. 친환경 농업 육성전략	55
3.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	56
4. 유기농업사업 추진	57
5. 친환경농업 실천 환경조성	60
제3절 그린투어리즘 사업 확대 추진	62
1. 그 동안의 문제점	62
2. 도시농가의 관광자원화	62
3. 지역농업자원의 관광자원화	67
제4절 생산기반의 정비 및 현대화	70
1. 농업생산 인프라 정비 및 농촌 현대화 사업	70
2. 다양하고 신속한 연결망 형성	71
3.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71
4. 농산품 저장시설 구축	72
5.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72

제5절	첨단농업기술 개발 보급	75
1.	첨단농업기술 사업화 방향	75
2.	생산관리체계의 현대화 및 첨단과학을 통한 신제품개발	75
3.	산·학·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76
4.	과학영농교육체제 구축 및 센터 조성	77
5.	「첨단벤처기술농단지」 조성	78
6.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서비스 기능 강화	79
7.	과학적 농장관리 프로그램 보급	79
제6절	농산물유통 시스템 개선	80
1.	첨단농업기술 사업화 방향	80
2.	다양한 유통시스템 구축	80
3.	농산물 전자상거래(E-Mart) 구축	85
4.	다량 소비자와의 직거래 확대	89
5.	공동 유통체계 확립	89
제7절	수출농업구조 구축	92
1.	지역농산물 수출의 특성	92
2.	지역농산물 수출중대 사업	92
제8절	축산업 육성	94
1.	축산업육성 기본전략	94
2.	축산업 육성사업	94
제9절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97
1.	농촌문화 진흥과 정보화	97
2.	여성 및 노인복지 증진	97
3.	보육 및 교육 서비스	98
제6장	투자사업내역	99



< 표 2-1 > 전국 및 대전의 경지면적	14
< 표 2-2 > 전국 및 대전의 농가 및 농가인구수	14
< 표 2-3 > 농가 및 농가인구 변동추이	15
< 표 2-4 > 농가소득 변동추이	15
< 표 2-5 > 농가부채의 구성내역	16
< 표 2-6 > 주곡류 재배면적	17
< 표 2-7 > 두류 재배면적	17
< 표 2-8 > 전국 및 대전의 경지면적	17
< 표 2-9 > 엽채류 재배면적	20
< 표 2-10 > 근채류 재배면적	20
< 표 2-11 > 과채류 재배면적	21
< 표 2-12 > 조미채소 재배면적	22
< 표 2-13 > 양채류 재배면적(2000년 기준)	22
< 표 2-14 > 연도별 전국 과수재배 추이	23
< 표 2-15 > 주요 과수재배 현황(2001년 기준)	24
< 표 2-16 > 배, 포도의 노지 및 시설재배면적(2001년 기준)	24
< 표 2-17 > 성목 과수의 재배면적(2001년 기준)	24
< 표 2-18 > 미성목 과수의 재배면적(2001년 기준)	25
< 표 2-19 > 전국 화훼재배 농가수와 경영 현황	25
< 표 2-20 > 화훼재배 농가의 규모별 현황	26
< 표 2-21 > 화훼농가의 시설 현황	26
< 표 2-22 > 화훼농가의 재배기구 현황	26
< 표 2-23 > 화훼재배 농가의 재배보조시설 현황	27
< 표 2-24 > 화훼재배 농가의 재배인력 현황	27
< 표 2-25 > 화훼류 판매업 현황	27
< 표 2-26 > 화훼 품목별 생산현황(2000년 기준)	29
< 표 5-1 > 특화작물 선정 육성사업	47
< 표 5-2 > 국내에서 재배되는 작목의 특성	48

< 표 5-3 > 주요 시설채소의 경영상 특성	48
< 표 5-4 > 채소재배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49
< 표 5-5 > 재배시설의 작업별 기계화, 자동화 내용	50
< 표 5-6 > 과수재배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52
< 표 5-7 > 전국 화훼류 재배 현황	52
< 표 5-8 > 전국 주요 화훼류 재배면적 및 생산액	53
< 표 5-9 > 그린투어리즘 대상지역 특성	67
< 표 5-10 > 국내 농업 교육기관	78
< 표 5-11 > 농산물의 판로개척사업 유형	82
< 표 5-12 > 농산물 유통정보 제공기관 및 주요 업무	84



[그림 5-1] 그린투어리즘 개념도	63
[그림 5-2] 농산물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	72
[그림 5-3]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도	74
[그림 5-4] 통합 쇼핑몰 구축 예시도	87
[그림 5-5] 농산물 B2B 전자상거래 체계도	88
[그림 5-6] 공동계산제 추진 절차	90

제1부 총론

- 1
- 2
- 3

제1장 과업수행의 개요

제1절 과업수행의 배경

- 국내외 농업여건과 환경이 급변화 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삶의 질 수준에 있어서의 격차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쌀값 하락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와 농촌 지역내의 일손부족과 고령화 지속, 영농자금 부족, 농가부채 누적 등으로 농민의 사기가 매우 낮음
- 최근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도시지역 주민들의 여가시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관광을 통해 지역농가가 소득증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대도시 근교농업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고 과학기술도시로서 과학영농, 첨단 농업기술의 확산을 통해 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
- 유기농법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한 도시소비자의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직거래 확대 등 유통체계의 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은 지역농업을 둘러싼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해 나가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보다 지역의 농업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업비전의 제시와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농업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내 각 농촌 洞(부락, 마을)별 생산농가의 특성과 발전잠재력을 살펴 좀 더 체계적인 농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생산, 유통에 농민들이 보다 의욕 있게 참여하고, 개별농가가 농업을 통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제2절 과업수행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전광역시의 농업이 처해있는 대내외적인 환경하에서 농업의 지역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농업의 장단점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전체를 총괄하는 농업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권역별, 농촌부락별로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사업 개발, 특화작목 선정,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추진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대전농업의 발전잠재력을 활용하여 농업경쟁력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함
- 현재 지역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문제점 요인을 최대한 극복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대전 대도시권 내의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회적인 요인과 강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21세기 이상적인 농촌상을 형성해 나가도록 함

제3절 과업의 범위와 방법

1.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인 범위

- 본 과업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을 위한 단·중·장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기준연도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하며, 과업의 시간적 범위는 2003~2010년까지 8년간으로 정함
-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본 과업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며, 단기는 2003~2004년, 중기는 2005~2007년, 장기는 2008~2010년으로 설정함

나. 공간적인 범위

-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을 과업의 공간적인 범위로 설정
- 사업별로 자치구와의 협력을 고려하여 5개 자치구역별로 구분하여 권역별 과업 수립

다. 내용적인 범위

- WTO를 비롯한 각종 라운드의 발효 등 국내외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경쟁력 있는 농업발전 모델을 마련
- 농업기반조성, 농업생산성 향상, 유통구조개선, 농촌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화 추진에 역점
- 첨단 과학도시의 위상과 역량이 농업생산, 소득증대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첨단과학기술의 농업생산에의 적용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
- 미작중심의 농업에서 신선채소, 약용작물, 과실류 등 대도시 근교농업으로 입지 우위성을 살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작목중심으로 품목개발 육성
-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레저수요를 감안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마련
-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 발전방안 강구

2. 과업수행의 방법

- 본 과업의 수립을 위해서 농업관련 국내외 주요 문헌과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대전비전 2020」, 「2016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대전농업·농촌발전계획(2단계) 등 대전광역시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각 자치구에서 수립한 관련계획을 반영함
- 지역 농업인의 의견과 농업분야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폭넓게 반영코자 주요 농촌지역과 작목별로 농업경영인과 지도자와의 직접 면담을 실시하고, 자치구와 주민자치센터의 협조를 얻어 지역내 농촌(부락, 마을) 단위로 ‘농촌발전현대화중장기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농촌지역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와 농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농업인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적인 공론화를 통해 정책개발을 시도함
- 사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천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과는 별도로, 대전광역시가 사업의 중심주체가 되어 향

후 2010년까지 추진해야 할 모든 중요한 사업을 최대한 망라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와 대상사업을 설정함

- 본 과업에 권역별 농업발전구상 및 투자사업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공간적, 시간적인 측면에서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체크 리스트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함

제2장 대전농업의 여건과 현황

제1절 대전의 농업여건

1. 대외적인 여건

- 세계 농산물무역환경은 WTO 도하개발아젠다 출범('01.11.14)과 경제블록화의 확산으로 시장개방 폭 증가와 경쟁심화 전망
 -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서 시장개방의 추가적 확대와 국내보조의 추가적 삭감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임
 - 특히, 2004년 쌀 재협상에 있어서 관세화이행 또는 최소시장접근(MMA)에 따른 의무수입량 확대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보조금, 관세 등 국경보호를 통한 국내 생산보호기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으로 농산물교역 규모의 확대가 전망되며 국내외시장에서 중국농산물과 치열한 경쟁 예상
 -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과 수출을 통한 새로운 잠재력의 개발가능성 모색이 요청됨
- 농산물 시장개방은 수입확대와 동시에 수출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

2. 국내적인 여건

- 생산성향상과 시장개방으로 공급여력이 증가한 반면, 소비수요정체로 농산물 과잉 기조가 진행
 - 수입농산물 증가로 국내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성 심화

- 소비형태의 다양화, 고급화와 친환경·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증가 등 농산물유통환경이 크게 변화
- 가격보다는 안정성, 브랜드, 품질 등의 측면에서 차별화 된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
- 연령대별, 계층별, 생활방식 별로 선택기준이 다양화

-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
 - 식량안보, 국토·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
 - 전원생활, 관광·휴양공간으로서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중요성 부각

- 농어촌인구의 감소·노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도·농간 소득 및 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
 - 이제는 고품질·안전성 등 비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비교우위가 결정되므로 시장에서 차별화 되는 농산물 공급이 중요

3. 대전농업의 특수여건

- 도시민에 비해서는 물론 일반 농업지역에 비해서도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농가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음
 - 호당 경지규모의 영세성 : 전국 1.3ha, 충남 1.5ha, 대전 0.95ha
 - 농가소득('99) : 전국 23,323천원, 충남 21,293천원, 대전광역시는 경지규모로 비추어 볼 때 충남의 70~80%수준으로 추정
- 도시개발로 인한 농지와 농업인구의 감소로 농업의 산업적 비중이 낮아 농업·농촌이 시정의 소외부문이 됨
- 도시 속의 농업으로 정부지원 미약
 - 생산기반, 유통시설 취약
- 그린벨트 속 농촌으로 생활환경이 열악
 - 대전시의 농촌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각종 건축, 시설 설치 제한으로 생활환경 열악

- 시 농산물 유통정책은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추진
 - 생산자 출하조직(작목반, 농협)의 기능 취약, 산지유통시설 열악
 - 공동규격출하, 공동계산제 추진이 어려워 거래 교섭력 취약, 농가 수취가격 제고 곤란
- 각종 환경규제로 농업발전 제약
 - 대전시 농업인은 일반 농업지역 농업인보다 2중 3중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 영농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전시민에게 녹지공간, 휴식공간,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조건 불리 지역의 농업이라는 차원에서 농가 소득 보전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필요시 대전시 조례제정)

제2절 대전의 농업 현황

1. 농업기반의 현황

- 시 전체 대비 농가호수는 1.6%, 농업인구가 1.8%로 되어있으나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2004년에는 농업인구가 1.5%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가의 수입은 약간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히려 농가의 부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지역의 기후적 특성은 한반도 중부구의 일반적 특성과 같이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시설재배의 관리에서 특히 냉·난방의 어려움을 암시함

가. 경지면적

- 대전광역시의 전체 면적은 539.7km² 이고, 2000년 말 경지면적이 총 6,393ha (63.93km²)로 11.84%로 되어 있고, 이중 논이 3,421ha로 경지면적의 53.5%, 밭이 2,972ha로 경지면적의 46.5%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의 경지면적은 전국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표 2-1 > 전국 및 대전의 경지면적

(단위 : ha)

구 분	경 지 면 적				
	소 계	논	구성비	밭	구성비
전 국	1,888,765	1,149,041	60.8%	739,724	39.2%
대전광역시	6,393	3,421	53.5%	2,972	46.5%
	0.33	0.29		0.40	

나. 농가 및 농가인구수

-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 및 농가인구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0년말 현재 농 가수는 약 7천 가구로 전국의 0.5%, 농가인구는 약 25,000명으로 0.6%를 차지하고 있고, 시 전체 가구 수 및 인구의 1.6%와 1.8%를 차지하고 있음

< 표 2-2 > 전국 및 대전의 농가 및 농가인구수

(단위 : 천 호, 천 명)

구 분	가 구 수			인 구 수		
	총 가구	농 가구	구성비	총인구	농가인구	구성비
전 국	16,006	1,384	8.6%	47,976	4,032	8.4%
대전광역시	439	7	1.6%	1,390	25	1.8%
	2.74	0.50		2.89	0.62	

자 료 : 대전통계연보, 지역통계연보(통계청)

다. 농가 및 농가인구의 변동추이

- 대전은 중부권 중핵도시로 전체 인구수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농가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세를 나타내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도에는 시 총인구대비 농가 인구수는 1.5% 범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됨

< 표 2-3 > 농가 및 농가인구 변동추이

구 분		가 구 (호)			인 구 (명)		
		총가구	농가수	%	총인구	농가인구	%
연도별	1985	190,270	5,973	3.0	866,695	34,669	4.0
	1990	262,348	9,317	3.5	1,049,578	41,460	3.9
	1995	358,311	7,886	2.2	1,272,121	31,024	2.4
	2004	427,152	6,710	1.6	1,368,287	25,220	1.8

자 료 : 대전통계연보, 지역통계연보(통계청)

라. 농가소득(전국)

- 가구 당 농가소득은 '97년을 정점으로 하여 IMF 경제위기를 맞게되면서 '98년도에는 20,494천원으로 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음
- 광역시의 경우 통계청의 표본조사시 조사구가 설정되지 않아 우리 시만의 정확한 농가의 소득을 알 수는 없으나, 인근 충청남도의 통계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음

< 표 2-4 > 농가소득 변동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1999	2000				전년대비 증감율
		계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전 국	22,323	23,072 (100%)	10,897 (47.2)	7,432 (32.2)	4,743 (20.6)	3.4%
(충남)	22,771	22,376 (100%)	11,131 (49.7)	7,073 (31.6)	4,172 (18.7)	-1.7%

자 료 : 2000 농가경제 동향(통계청)

마. 농가부채

- 농가부채에 대한 통계 역시 광역시의 경우 통계청의 표본조사시 조사구가

설정되지 않아 우리 시 농가의 정확한 부채를 알 수는 없으나, 인근 충청남도의 통계를 인용하면 가구당 2000년도 농가부채는 20,207천원으로 지난해의 18,535천원에서 9.0%(1,672천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표 2-5 > 농가부채의 구성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1999	2000				전년대비 증감율
		계	생산성부채	가계성부채	차입금이자	
전 국	18,535	20,207 (100%)	15,159 (75.0)	3,882 (19.2)	1,166 (5.8)	9.0%
(충남)	17,795	19,211 (100%)	16,176 (84.2)	2,541 (13.2)	494 (2.6)	7.9%

자 료 : 2000 농가경제 동향(통계청)

바. 대전지역의 기상적 특성

- 대전지역의 기후는 한반도의 일반적 특성인 기후대중 중부구에 위치하며 '87년~'94년까지의 조사기록으로 최고기온 37.7℃, 최저기온 -16.2℃로 한서(寒暑)의 차이가 심함. 연 평균 강우량은 1340mm 정도이고 북서풍이 부는 1~2월을 제외하고는 주로 남서풍이 1.7%의 풍속으로 불고 있음

2. 작물재배의 현황

가. 곡류

- 대전지역의 주곡류 생산의 면적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주곡류에서 특기할 사항은 2000년대까지는 재배가 없던 밭벼와 걸보리의 재배가 나타났다는 것임
 - 이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농업현황에서 농가의 소득 면으로 보나 국가의 양곡정책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 사료됨. 이는 경제작목으로 전환하려는 농민의 의지와 농정당국의 알선이 필요함

- 두류는 재배 규모로는 안정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가의 소득면에서 재배 종류와 규모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잡곡·서류에서 특히 대전지역에서 가을 감자가 재배되고 있지 않음은 의아스러운 일임

< 표 2-6 > 주곡류 재배면적 (단위 : ha, %)

작물명	구분	1999		2000		2001		주산지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논벼	전국	1,058,555	100	1,055,034	100	1,055,750	100	전국
	대전	2,948	0.3	2,888	0.3	2,797	0.3	
밭벼	전국	7,648	100	17,329	100	27,375	100	해남, 부안, 신안 등
	대전	0	0	0	0.0	6	0.0	
겉보리	전국	11,592	100	11,046	100	13,624	100	완주, 고령, 창녕 등
	대전	4	0	4	0	15	0.1	

< 표 2-7 > 두류 재배면적 (단위 : ha, %)

작물명	구분	1999		2000		2001		주산지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콩	전국	87,026	100	86,176	100	78,415	100	제천, 고흥, 해남 등
	대전	239	0.3	258	0.3	239	0.3	
팥	전국	12,214	100	12,043	100	10,751	100	평창, 영월, 보은 등
	대전	16	0.1	26	0.2	18	0.2	
녹두	전국	2,268	100	2,103	100	2,762	100	태안, 신안, 해남 등
	대전	0	0.0	3	0.1	3	0.1	
강남콩	전국	2,950	100	3,722	100	3,458	100	이천, 강릉, 울진 등
	대전	24	0.8	24	0.6	24	0.7	

< 표 2-8 > 전국 및 대전의 경지면적

(단위 : ha, %)

작물명	구분	1999		2000		2001		주산지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옥수수 간식용	전국	17,560	100	14,114	100	12,838	100	양평, 정선, 원주 등
	대전	61	0.3	51	0.4	43	0.3	
고구마	전국	20,109	100	16,149	100	12,718	100	이천, 익산, 논산 등
	대전	106	0.5	50	0.3	58	0.5	
봄감자	전국	16,990	100	19,042	100	14,955	100	당진, 보성, 강릉 등
	대전	31	0.2	42	0.2	47	0.3	
가을 감자	전국	4,554	100	3,732	100	3,668	100	김제, 제주, 남제주 등
	대전	0	0.0	0	0.0	0	0.0	
시절 감자	전국	1,625	100	1,688	100	1,182	100	김제, 김천, 밀양 등
	대전	21	1.3	27	1.6	0	0.0	

나. 채소류

- 엽채류와 근채류에서 특별한 점은 시설배추와 무의 재배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배추 또는 비대 무의 용도라 하기보다 풋거리 채소로 생각되며, 이는 대전 지역의 경제작목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봄
- 과채류에서 수박의 경우 점차 감소 추세에 있지만 특히 2001년도 재배실적으로 시설재배가 노지재배보다 8배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대전근교에서 수박의 시설 관리온도 측면이나 도시근교농업의 특성으로 볼 때 수박과 참외는 제철재배에 의한 도시인에게 산지의 신선한 맛과 풍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노지재배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음
- 오이와 호박은 풋과일 채소로 특히 시설오이 재배는 두드러지고 있고 대전지역에서 경제작목으로 시사하는 바가 큼

- 토마토의 경우는 방울 토마토와, 일반 토마토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특히 일반토마토의 수경재배는 고려할 가치가 있음
- 딸기의 경우는 노지 및 시설재배 모두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작목이라 하겠음
- 조미채소류의 재배에는 특히 토양 및 기후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아 주산지가 결정되므로 작목의 선택에서 지역 또는 국지적 환경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양채류는 대전 지역에서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각종 쌈의 재료가 되는 채소의 대전지역에 도입하는 문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표 2-9 > 엽채류 재배면적 (단위 : ha, %)

작물명	구분	1999		2000		2001		주산지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일반배추	전국	16,242	100	18,908	100	20,016	100	영월, 춘천, 신안 등
	대전	12	0.1	6	0.0	26	0.1	
김장배추	전국	12,929	100	16,413	100	14,169	100	평택, 청원, 제천 등
	대전	65	0.5	99	0.6	78	0.6	
시설배추	전국	5,476	100	6,274	100	5,120	100	남양주, 서산, 나주 등
	대전	75	1.4	93	1.5	37	0.7	
노지 시금치	전국	3,356	100	4,169	100	4,598	100	포항, 남해, 고성 등
	대전	29	0.9	30	0.7	37	0.8	
시설 시금치	전국	3,212	100	3,272	100	3,286	100	포천, 남양주, 나주 등
	대전	24	0.7	18	0.6	8	0.2	
노지상추	전국	2,058	100	1,767	100	1,316	100	전국
	대전	9	0.4	7	0.4	3	0.2	
시설상추	전국	4,836	100	5,918	100	5,598	100	충주, 완주, 하남 등
	대전	40	0.8	53	0.9	47	0.8	

< 표 2-10 > 근채류 재배면적 (단위 : ha, %)

작물명	구분	1999		2000		2001		주산지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일반무	전국	13,415	100	14,980	100	14,503	100	홍천, 안동, 예천 등
	대전	32	0.2	22	0.1	22	0.2	
김장무	전국	10,727	100	13,041	100	12,617	100	파주, 영암, 김제 등
	대전	33	0.3	40	0.3	35	0.3	
시설무	전국	5,376	00	6,697	100	6,203	100	예산, 밀양, 고양 등
	대전	194	3.6	203	3.0	151	2.4	
당근	전국	5,497	100	4,383	100	4,298	100	평창, 강릉, 양산 등
	대전	51	0.9	66	1.5	46	1.1	

< 표 2-11 > 과채류 재배면적

(단위 : ha, %)

작물명	구분	1999		2000		2001		주산지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노지수박	전국	13,200	100	9,499	100	7,951	100	영암, 영주, 당진 등
	대전	20	0.2	8	0.1	4	0.1	
시설수박	전국	21,299	100	20,952	100	20,500	100	부여, 고창, 고령 등
	대전	51	0.2	55	0.3	27	0.1	
노지참외	전국	814	100	754	100	600	100	전국
	대전	1	0.1	0	0.0	0	0.0	
시설참외	전국	10,045	100	9,449	100	8,055	100	익산, 나주, 성주 등
	대전	44	0.4	18	0.2	1	0.0	
노지오이	전국	1,728	100	1,426	100	1,557	100	연천, 홍천, 제천 등
	대전	0	0.0	3	0.2	1	0.1	
시설오이	전국	5,964	100	5,843	100	5,412	100	평택, 춘천, 부여 등
	대전	77	1.3	86	1.5	114	2.1	
노지호박	전국	4,286	100	4,516	100	4,694	100	화성, 제천, 홍천 등
	대전	35	0.8	36	0.8	33	0.7	
시설호박	전국	3,859	100	3,918	100	4,098	100	청원, 예산, 부여 등
	대전	51	1.3	68	1.7	32	0.8	
노지토마토	전국	258	100	170	100	130	100	전국
	대전	2	0.8	0	0.0	0	0.0	
시설토마토	전국	4,752	100	4,746	100	3,218	100	춘천, 충주, 철원 등
	대전	49	1.0	18	0.4	8	0.2	
노지딸기	전국	579	100	535	100	348	100	전국
	대전	1	0.2	3	0.6	3	0.9	
시설딸기	전국	5,748	100	6,555	100	7,219	100	완주, 밀양, 양산 등
	대전	16	0.3	41	0.6	25	0.3	

< 표 2-12 > 조미채소 재배면적

(단위 : ha, %)

작물명	구분	1999		2000		2001		주산지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노지고추	전국	75,574	100	74,471	100	70,736	100	영월, 영광, 해남 등
	대전	179	0.2	187	0.3	178	0.3	
시설풋고추	전국	5,085	100	5,659	100	5,517	100	예천, 밀양, 진주 등
	대전	15	0.3	7	0.1	21	0.4	
마늘	전국	42,416	100	44,941	100	37,118	100	서산, 태안, 영천 등
	대전	32	0.1	42	0.1	21	0.1	
노지대파	전국	14,421	100	13,768	100	12,136	100	이천, 청원, 아산 등
	대전	70	10.5	50	0.4	44	0.4	
시설대파	전국		100	1,392	100	1,383	100	고양, 남양주, 포천 등
	대전			10	0.7	22	1.6	
시설쪽파	전국		100	389	100	538	100	예산 등
	대전			1	0.3	3	0.6	
양파	전국	16,131	100	16,773	100	18,995	100	무안, 의성, 창영 등
	대전			2	0.00	1	0.00	

< 표 2-13 > 양채류 재배면적(2000년 기준)

(단위 : ha, %)

품 목	구분	계		노지		시설		비고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양채류	전국	1,680	54,208	0	0	-	-	
	대전	58	1,784	-	-	58	1,784	
피 만	전국	-	-	0	0	-	-	
	대전	55	1,680	-	-	55	1,680	
파세리	전국	-	-	0	0	-	-	
	대전	3	104	-	-	3	104	

* 적채, 꽃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등은 품목만 있고 생산실적이 없음

다. 과수류

- 사과 재배면적은 전국이나 대전지역 모두 감소추세에 있고, 배나무의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재배면적이 보합세라 할 수 있지만 대전지방은 노지 재배는 증가하고 시설재배는 감소추세이나 미성목 배나무는 많이 심은 것으로 되어 있음
 - 복숭아재배는 증가되고, 포도재배는 노지와 시설재배 모두 감소되었지만, 미성목에서는 늘고 있음. 특히 대전지역에 단감의 재배면적이 2001년에 13ha로 나타나 관심사항임
- 과수류의 재배동향과 작목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외국산 과수류의 수입 품목, 물량,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함

< 표 2-14 > 연도별 전국 과수재배 추이 (단위 : ha, %)

작물명	구분	1999		2000		2001		주산지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재배면적	점유율	
사과	전국	31,079	100	29,063	100	26,328	100	충주, 예산, 영천 등
	대전	34	0.1	33	0.1	30	0.1	
노지배	전국	25,677	100	26,142	100	25,459	100	나주, 안성, 천안 등
	대전	286	1.1	288	1.1	308	1.2	
시설배	전국	-	100	64	100	76	100	전국
	대전	-	-	4	6.3	1	1.3	
복숭아	전국	12,942	100	13,876	100	14,412	100	이천, 연기, 김천 등
	대전	46	0.4	51	0.4	59	0.4	
노지포도	전국	29,462	100	28,085	100	25,578	100	안성, 옥천, 경산 등
	대전	505	1.7	434	1.5	417	1.6	
시설포도	전국	1,075	100	1,115	100	1,225	100	옥천, 김천 등
	대전	71	6.6	57	5.1	52	4.2	
뽕은감	전국	6,914	100	7,377	100	7,682	100	영동, 정읍, 청도 등
	대전	67	1.0	63	0.9	62	0.8	
단감	전국	23,907	100	23,816	100	22,807	100	창원, 포항, 순천 등
	대전	0	0.0	0	0.0	13	0.1	

< 표 2-15 > 주요 과수재배 현황(2001년 기준)

(단위 : ha, %)

구분	계	사과	배	포도	감			복숭아	자두	대추	기타
					계	단감	뽕은감				
전국	166,912	26,328	25,535	26,803	30,489	22,807	7,682	14,412	5,303	5,225	6,162
(비율)	(100.0)	(15.3)	(16.0)	(16.0)	(18.3)	(13.7)	(8.6)	(8.6)	(3.2)	(3.1)	(3.7)
대전	1,046	30	309	469	75	13	62	59	29	41	34
%	0.6	0.1	1.2	1.8	0.2	0.1	0.8	0.4	0.1	0.8	0.6

*감귤 : 26,803ha (16.0%) 제주 주산

파인애플: 시설 128ha (100%) 감귤과 파인애플은 제주도 주산.

기타 과수 : 밤, 매실, 키위 등

< 표 2-16 > 배, 포도의 노지 및 시설재배면적(2001년 기준)

(단위 : ha, %)

구분	계		배		포도		기타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전국	163,291	3,621	25,459	76	25,578	1,225	5,578	456
(비율)	(97.8%)	(2.2%)	(99.7%)	(0.3%)	(95.4%)	(4.6%)	(92%)	(8%)
대전	993	53	308	1	417	52	34	
%	0.6	1.5	1.2	1.3	1.6	4.2	0.6	

< 표 2-17 > 성목 과수의 재배면적(2001년 기준)

(단위 : ha, %)

구분	계	사과	배	포도	감			복숭아	자두	대추	기타
					계	단감	뽕은감				
전국	122,193	19,186	14,782	22,146	21,223	16,786	4,437	8,062	2,817	4,515	4,640
(비율)	(73.2)	(72.9)	(57.9)	(82.6)	(69.6)	(73.6)	(57.8)	(55.9)	(53.1)	(86.4)	(75.3)
대전	789	29	177	425	41	4	37	29	29	37	22
%	0.6	0.2	1.2	1.9	1.2	0.0	0.8	0.4	1.0	0.8	0.5

< 표 2-18 > 미성목 과수의 재배면적(2001년 기준)

(단위 : ha)

구분	계	사과	배	포도	감			복숭아	자두	대추	기타
					계	단감	뽕은감				
계	44,719	7,142	10,753	4,657	9,266	6,021	3,245	6,350	2,486	710	1,522
(비율)	(26.8)	(27.1)	(42.1)	(17.4)	(30.4)	(26.4)	(42.2)	(44.1)	(46.9)	(13.6)	(24.7)
대전	257	1	132	44	34	9	25	30		4	12
%	0.6	0.0	1.2	0.9	0.4	0.1	0.8	0.5		6.2	0.8

라. 화훼류

(1) 화훼류의 생산기반

- 화훼류의 생산기반을 살펴보면 재배농가수가 타지방보다 상당히 적은 편이며 농가의 규모도 600평 미만이 전체 104호 중 51호로 49%나 되고, 재배시설은 거의 비닐피복으로 유리나, P.E.T 등의 피복 없어 영세성을 보임
 - 특히 아직도 목·죽재 온실이 전체의 0.2%나 존재하고 있음
- 화훼생산을 뒷받침하는 재배설비 및 이용기구도 전국대비 상당히 미약한 형편에 있고, 대전에는 화훼공판장이 없는 상태임
 - 다만, 재배인력 면에서는 5년 이상의 경력재배자가 전체 165명 중 119명으로 72.12%로 나타나 숙련 재배인력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되어 있음

< 표 2-19 > 전국 화훼재배 농가수와 경영 현황

시도별	계(호)			전업			부업		
	소계	자가	임차	소계	자가	임차	소계	자가	임차
계	13,080	7,005	6,075	10,312	4,732	5,580	2,768	2,273	495
대전	104	40	64	78	18	60	26	22	4
경기	3,804	1,266	2,538	3,657	1,190	2,467	147	76	71
강원	343	330	13	200	193	7	143	137	6
충북	491	412	79	252	203	49	239	209	30
충남	918	863	55	631	595	36	287	268	19

< 표 2-20 > 화훼재배 농가의 규모별 현황

(단위 : 호)

시도별	계	300평 미만	600평 미만	900평 미만	1,200평 미만	2,400평 미만	3,000평 미만	3,000평 이상
계	13,080	1,262	2,765	2,588	2,181	2,601	586	797
대전	104	19	32	26	14	5	1	7
%	8.0	1.5	1.2	1.0	0.6	0.2	0.2	0.9

< 표 2-21 > 화훼농가의 시설 현황

(단위 : ha)

구분	계	합계	영구(철골재)				온실		반영구온실				노지 면적
			소계	유리	PET	PC	FRP	비닐	소계	철과 이프	목. 죽재	기타	
전국	5,722.4	3,273.9	344.6	109.9	5.6	3.7	0.2	225.2	2,929.3	2,545.2	353.3	30.8	2,448.5
대전	34.8	10.8	0.3	-	-	-	-	0.3	10.5	10.3	0.2	-	24.0
%	0.1	0.3	0.1	-	-	-	-	0.1	0.4	0.4	0.1	-	1.0

< 표 2-22 > 화훼농가의 재배기구 현황

구분	난방기			꽃수송차량			꽃건 조기	토양 소독 기	농약 살포 기	CO ₂ 발생 기	자동 액비 시비 장치	구근 굴취 기	다목 적작 업기	결속 기	선별 기
	계 (대)	온수	온풍	계	일반	보냉 탑차									
전국	18,143	2,188	15,955	4,171	3,997	174	37	453	8,874	1,499	865	200	2,971	1,884	274
대전	98	1	97	79	74	5	-	10	64	3	5	2	29	39	-
%	0.5	0.0	0.6	1.9	1.9	2.9	-	2.2	0.7	0.2	0.6	1.0	1.0	2.1	-

< 표 2-23 > 화훼재배 농가의 재배보조시설 현황

구분	조직배양실		저온처리실		양액재배 시설		선별처리 시설		자동개폐 시설		관수시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전국	140	평 8,679	1,836	평 43,062	581	평 527,398	599	평 18,573	동 7,443	ha 1,149.9	동 18,114	ha 1,781.9
대전	-	-	-	-	-	-	-	-	8	0.6	40	2.5
%	-	-	-	-	-	-	-	-	0.1	0.1	0.2	0.1

< 표 2-24 > 화훼재배 농가의 재배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재배인력			재배경력				
	계	자영	상용 고용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전국	23,653	18,393	5,260	726	2,754	5,176	7,311	7,332
대전	165	126	39	2	10	34	67	52
%	7.0	0.7	0.7	0.3	0.4	0.7	0.9	0.7

< 표 2-25 > 화훼류 판매업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유사 시장	화방 (화원)	꽃꽃 이원	노점	직판장	공판장	집하장	농자 재점	기타
전국	12,293	50	10,902	418	331	163	43	88	332	191
대전	314	2	260	8	3	33	-	1	7	-
%	2.6	4.0	2.4	1.9	0.9	20.2	-	1.1	2.1	-

(2) 화훼류 생산현황

- 화훼의 품목별 생산에서 전국대비 재배면적을 보면 절화류가 0.05% , 분화류가 1.15%, 구근류가 0.44%, 화목류가 0.67%, 관상수가 1.56%로 관상수와 분화류 재배가 많고, 화목류, 구근류, 절화류 순임

- 재배규모로 보면 절화류에서는 시설 국화가 0.6ha 노지 국화와 시설장미가 각각 0.4ha로 되어 있어 그 규모가 적고 영세하다고 하겠음
 - 구근류는 백합과 글라디올러스가 각각 0.1과 0.2ha로 역시 소규모인데, 구근류는 종류에 따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며 작목을 선택하면 발전적인 종류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화목류에서는 영산홍의 시설재배가 없어 아쉬우나 철죽류와 분류에서 혼동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관상수는 주로 노지재배 수목으로 특이할만한 것이 없음

< 표 2-26 > 화훼 품목별 생산현황(2000년 기준)

(단위 : ha, 백만원)

품목별	구분	전 국			대 전		
		면 적	생산량	생 산 액	면 적	생산량	생산액
절화류	총괄	2,624.9	1,715,888	301,245	1.5	31	58,
	시설	2,316.7	1,602,312	285,175	1.0	26	57
	노지	308.2	113,576	16,071	0.5	5	1
분화류	총괄	1,036.2	282,656	268,499	12.0	349	1,054
	시설	975.5	266,152	264,722	11.1	347	1,028
	노지	60.6	16,494	3,768	0.9	2	25
구근류	총괄	68.0	23,846	5,846	0.3	5	2
	시설	52.1	18,288	5,039	0.1	1	
	노지	16.9	5,558	807	0.2	4	2
종자류	총괄	4.8	1,300	1,605			
	시설	4.0	1,242	1,544			
	노지	0.8	58	61			
화목류	총괄	685.5	107,563	29,276	4.6	49	148
	시설	60.0	8,504	6,410	2.7	35	66
	노지	625.5	99,059	22,865	1.9	14	82
관상수	총괄	1,627.9	60,879	58,527	25.4	327	604
	시설	78.3	1,965	5,966			
	노지	1,549.6	58,914	52,560	25.4	327	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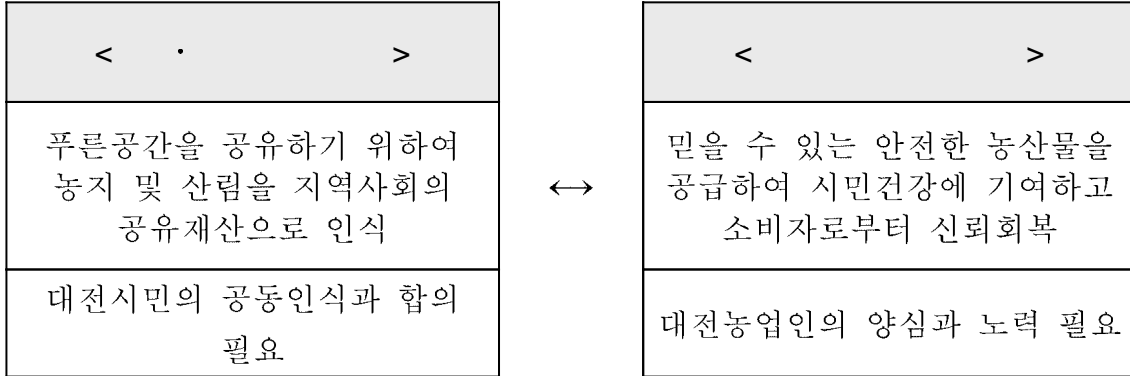
* (생산량 단위) 절화류 : 천본, 분화류 : 천본, 구근류 : 천구,
화목류 : 천주, 종자류 : l 관상수류 : 천주

제3장 대전농업의 발전방향 및 전략

제1절 대전농업의 발전방향

- 생산기반의 정비·보전을 위해 용수 및 배수시설의 정비, 농도망의 신설·정비 등을 추진하고, 농지의 집단화, 농작업 수위탁 촉진 등을 통해 농업기반을 정비·강화
 - 농업지역의 생활환경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농촌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 개발로 도농간의 균형적 발전 도모
-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명산지화의 추진, 생산의 조직화, 첨단농업의 촉진, 고부가가치화의 추진, 특화농업 육성지원 등을 추진
 - 식량작물 위주의 영농방식에서 벗어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작목의 선정지도, 고부가가치 작목의 개발·보급 확대 등 도시근교 농업의 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시책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제고
- 판매촉진체제의 정비와 수요창출 방안의 모색, 농산물 해외시장의 개척, 지역농산물 정보시스템의 구축, 그린투어리즘 사업 개발 등 다양한 판매촉진책 수립과 유통체제를 정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21세기 미래농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첨단농업 기술개발체제의 도입 및 농업부문에서의 산업화를 위한 수용체계 구축
- 농업의 본원적 기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 도시계획 및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겠음

가. 환경 자원보전 및 안전한 식품공급원으로서의 농업



나. 세부주제의 방향과 부합되는 농업

▷ 도시근교농업을 위한 고소득작목 육성

- 수급안정책 : 농업관측제도 (수급예측정보 제공) 도입,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과학적 농장관리 프로그램 보급
- 새로운 지역특화작물 선정 육성 : 기존 특화작물+신규 특화작물 개발지원
- 고품질브랜드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산내포도, 유성배를 중심으로 지역 우수명품 차별화 지원,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GMP방식 도입

▷ 농산물 유통

- 정보화 지원/ 디지털 농정체계 구축
- 농업응용프로그램, 전자상거래 등 : 지역농산물통합쇼핑몰 구축
- 농산물 품질·선도 유지 : 저온유통기반 확충, 지역특산품 포장 개선

▷ 그린투어리즘

- 특성별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농촌전통 문화체험장
- 지역특산품 활용 축제 활성화 : 이화(梨花)축제, 산내포도축제, 유성배테마로드 조성
- 참여형 관광농업 : 도시민 참가형 친환경영농단지 조성, 민박마을 운영 통합 시스템 구축, 주말학습농장 운영

제2절 대전농업 발전전략

1. 농업기반의 정비·강화

가. 생산기반 정비 및 보전

- 농업생산 기반의 정비를 통해 새로운 생산지의 형성, 대형 기계화 농업의 전개,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추진
 - 이와 관련해서 생산기술의 진보, 생산품목의 다양화, 노동력의 감소 등 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높은 수준의 생산기반 정비를 추진
- 고성능 기계의 도입과 시설화 등을 촉진하는 포장정비, 수리시설, 농로의 정비 등을 추진
- 중산간 지대에서는 정주환경 조성과 함께 기반정비를 추진
 - 고성능 대형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을 정비하고 용수와 배수를 위한 수리시설과 간선도로를 정비

나. 시설채소단지 확대 조성

- 4계절 지속적인 신선채소의 안정적 공급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채소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배시설의 현대화 추진
 - 이를 위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표준화 시설, 비닐 반자동온실 보급, 수막 재배시설, 수경재배시설, 비가림재배시설, 채소공동육묘장 설치, 시설채소 재배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

다. 화훼단지 확대 조성

- 도시지역으로 부터의 화훼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대응해 화훼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꾀하고, 장래 유망한 농가소득원으로 개발·육성키 위해 화훼단지 확대 조성
 - 국제경쟁력이 높은 전략작목 가운데 하나인 화훼류의 생산확대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계획기간 동안 시설현대화, 번식온실 확충 등의 사업 추진

라. 유기농법 생산단지 조성

- 품질 좋고 안전한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공급으로 소비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고 장기적인 농가소득 증대, 농경지의 지력회복 및 농촌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유기농법에 의한 생산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사업규모 적극 확대
- 사업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유기농업에 의한 농작물 생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시설투자시 시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도시지역내 소비자들과의 직거래를 위한 다가적인 사업 강구

2. 농업생산력 증대

가. 명산지화 추진

-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수입농산물 및 생산지간의 경쟁 속에서 대전농업이 발전적인 방향에서 확고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지화가 필요
- 이에 부수적으로 우수농산물에 대한 명산지 인증이나 산지표시 등으로 생산지의 특산지화 추구

나. 생산의 조직화

- 앞으로 외국산 수입농산물과 국내 생산지간 경쟁에 대응하려면 출하규모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며, 육묘와 생산의 분리를 통한 생산물량의 증대와 인근 생산지(예 : 논산, 연기, 금산, 공주, 옥천, 부여 등)간의 연계재배 등을 통한 생산지의 규모 확대를 도모
- 생산자 단체의 광역·합병과 같은 제도개편과 아울러 대형화된 생산자 단체간에 생산과 출하를 협정하는 등 생산지 제휴 필요
- 생산과 출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광역유통거점의 정비와 상표통합, 광역화된 작목별 생산자 조직의 육성, 육묘시설의 정비 등을 촉진

다. 첨단농업의 촉진

- 농업의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 첨단농업을 적극 육

성함으로써 우리나라 대도시 근교농업의 발전에 있어서 대전농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 첨단화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제어가 가능한 시설재배, 공장화 방식의 작물재배 및 각종 농작물에 대한 수요와 시장성 검토를 추진해 나가고, 연중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배작형을 수립
- 병해와 충해에 강한 품종을 도입하여 경종적, 생물적, 물리적인 방법만으로도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유기농업이나 BOX재배 등 지역조건에 따라 개성있는 농산물을 생산

라. 특화농업 육성

- 대전의 농업특산물은 대전 포도, 유성 배, 세동 상추 등으로 타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이들 우량품종의 재배를 통해 지역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현 재배단지의 효율적인 보호·육성 및 주산지 주변을 중심으로 신규 재배단지를 확대·조성
- 지역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유리한 가격설정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 특산물에 대한 판촉홍보 강화
 - 산내포도 : 축성재배시설, 비가림시설, 수종갱신, 포장재 개발
 - 시설채소 : 비닐하우스, 표준화시설, 양액재배시설, 포장재
 - 유성배 : 수종갱신, 덕시설, 배수·관수시설, 포장재, 과일저장시설
 - 버섯 : 버섯재배사 현대화, 저온저장시설, 저온수송차량
-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특화작목에 대한 브랜드화의 추진, 판촉 마케팅전략의 수립, 연중출하를 위한 공동브랜드화 추진

마.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

- 농원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축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관광객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프로그램을 마련, 다양한 농외 소득원을 창출하고 도시민의 휴양공간을 마련
-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농촌과 자연환경에 관한 현장학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

3. 농산물 유통체제 정비

가. 다양한 유통시스템 구축

- 생산물의 직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 지역농산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 市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아파트 등 도시내의 인구밀집 지역에 자매결연 사업을 통한 주말 농민 시장 등을 설치 운영
-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구조 확보를 위해 저온저장고 설치, 냉장탑차 등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규격출하 지원, 지역특산품 포장개선사업 추진
- 다양한 농산물 소비홍보를 통해 수요창출을 모색하고 특히 생산 및 출하정보 관리와 정보공급 체제를 정비
-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정보센터를 설치·가동하고, 수집된 정보의 활용극대화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재배 및 생산기술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를 마련

나.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 오정·노은도매시장과 대전농산물유통센터를 중부권 농산물 거점기지로 육성
- 산지의 생산자 조직과 소비지의 소매상과의 회원제방식의 운영 확대
 - 「예약생산 및 주문판매」로 유통단계를 축소,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 도매시장내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활성화 추진
 - 전자경매제 도입으로 공공성 및 공정·공평·공개원칙 확보
 - 출하자 등록, 출하약정제 도입 운영
 - 상장수수료의 지속적인 인하 및 우수 출하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정가·수의 매매의 탄력적 운용과 상장애외품목 확대 운용

다. 해외시장 개척

-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 대해서 지역 농산물의 수출대책을 모색

- 농업 및 무역관련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농산물 수출 촉진단을 결성, 판로 개척
-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해외농산물 거래동향 및 각종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수집, 농가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전달 체계 수립

라. 지역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 조직적인 농산물판매망 구축 등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농산물의 적기출하가 가능하도록 상품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지역농업정보센터 설립·운영

4. 미래를 향한 농업기술개발

가.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농산물을 최소의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
- 광(光)기술을 활용한 간편하고 정밀도 검사가 가능한 품질평가법이나 수확후의 품질보전기술(포스트 하베스트)을 개발·보급
-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품종 및 가공법·소비적성 등이 높은 포장방법을 도입
- 생물공학기술의 활용과 유전자원의 탐색·보존을 통해서 고품질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작물과 지역에 적합한 품종개발을 추진
- 우량종묘의 증식기술 보급, 생태계를 이용한 방제법 및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의 작출을 통해 다양한 소비폭 확대를 위해 특색있는 생산품 개발

나. 기술개발체제의 정비

- 대전에는 현재 시 자체의 농업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단독적 연구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소, 각 대학 연구소 및 대덕연구단지 등 국가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와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체제를 폭넓게 수립

-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중앙과 인근의 관련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체제를 수립,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폭넓은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 농업기술센터 담당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로 기술지원능력 향상
 - 경영진단 및 컨설팅 기능 강화로 농가 경영혁신 유도
 - 수출농가의 현장기술지원 및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상설교육
 - 신기술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조기확산 유도
- 경영·기술 컨설팅 제도의 도입
 - 신규시설지원(Hardware)에서 기존시설의 내실화(Software) 도모
 - 농업기관 및 민간 컨설팅 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지원체제 구축, 파종부터 수확, 가공, 유통 등 전 단계에서 기술 및 경영지원

다. 환경친화적 농림업 육성

- 환경오염 부하 경감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경감
 - 축산분뇨 처리대책
- 환경친화적 농업시책 추진
 -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환경농업지구 조성, 상수도보호구역 환경농업육성 지원, 권역별 환경농업 모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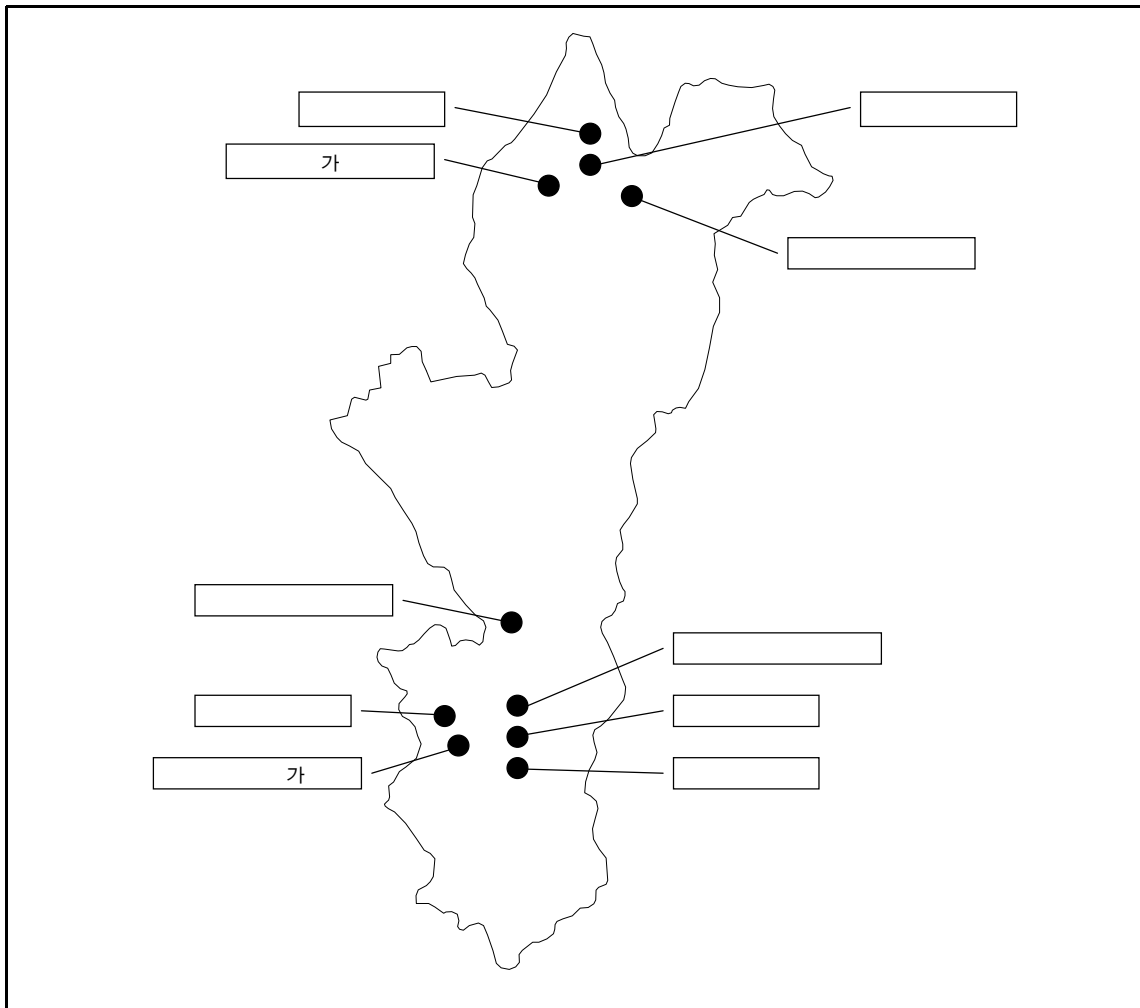
제2부 부문별 발전방안

- 4
- 5
- 6

제4장 권역별 발전구상

1. 동 구

- 지역명품인 포도 주산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산내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최상의 품질을 추구하는 우수과수명품화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산내포도축제를 대전의 상징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 대청호 주변에 위치한 직동을 중심으로 노고산성, 등산로, 전통적인 농촌체험 등을 소재로 한 4계절형 그린투어리즘을 조성하고, 직동-마산동을 연계한 유기농법가족농단지, 친환경시범농단지를 조성
- 소호동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 더덕특화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친환경실천농가 육성 사업을 도입하여 지역에 드문 산악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소재를 발굴 육성해 나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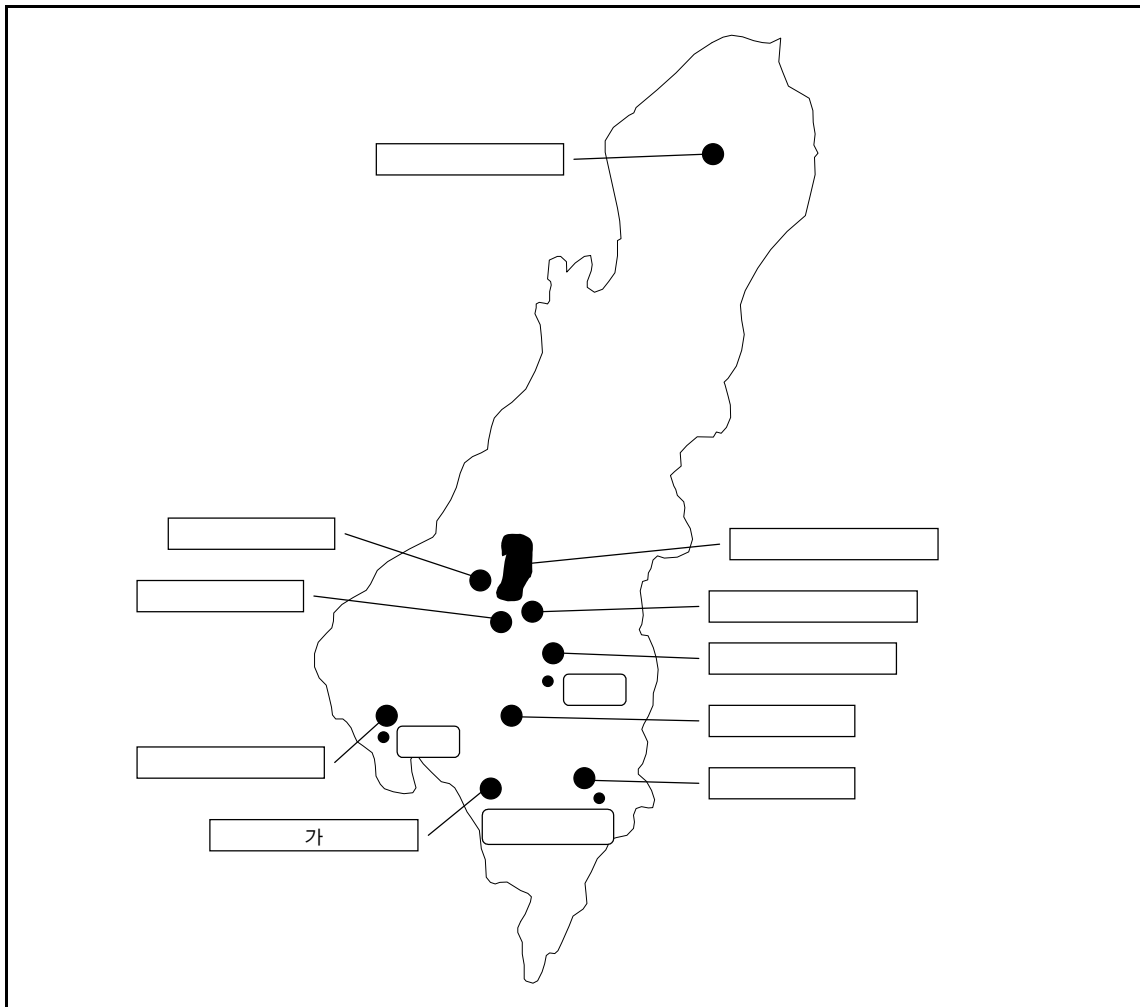
2. 중 구

- 보문산 남쪽자락과 유등천 상류가 에워싸고 있는 침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육묘장과 학습관광형의 토종식물재배단지 조성하는 한편, 침산-정생동 지역을 중심으로 유기농법가족농단지와 주말학습농장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육성사업을 전개
- 안영농산물유통센터내에 유기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기능을 보완해 나가고, 많은 도시민이 찾는 대전동물원 인근지역에 지역농산물 명품홍보관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
- 소비자들이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에 소규모의 상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농산물직거래 센터를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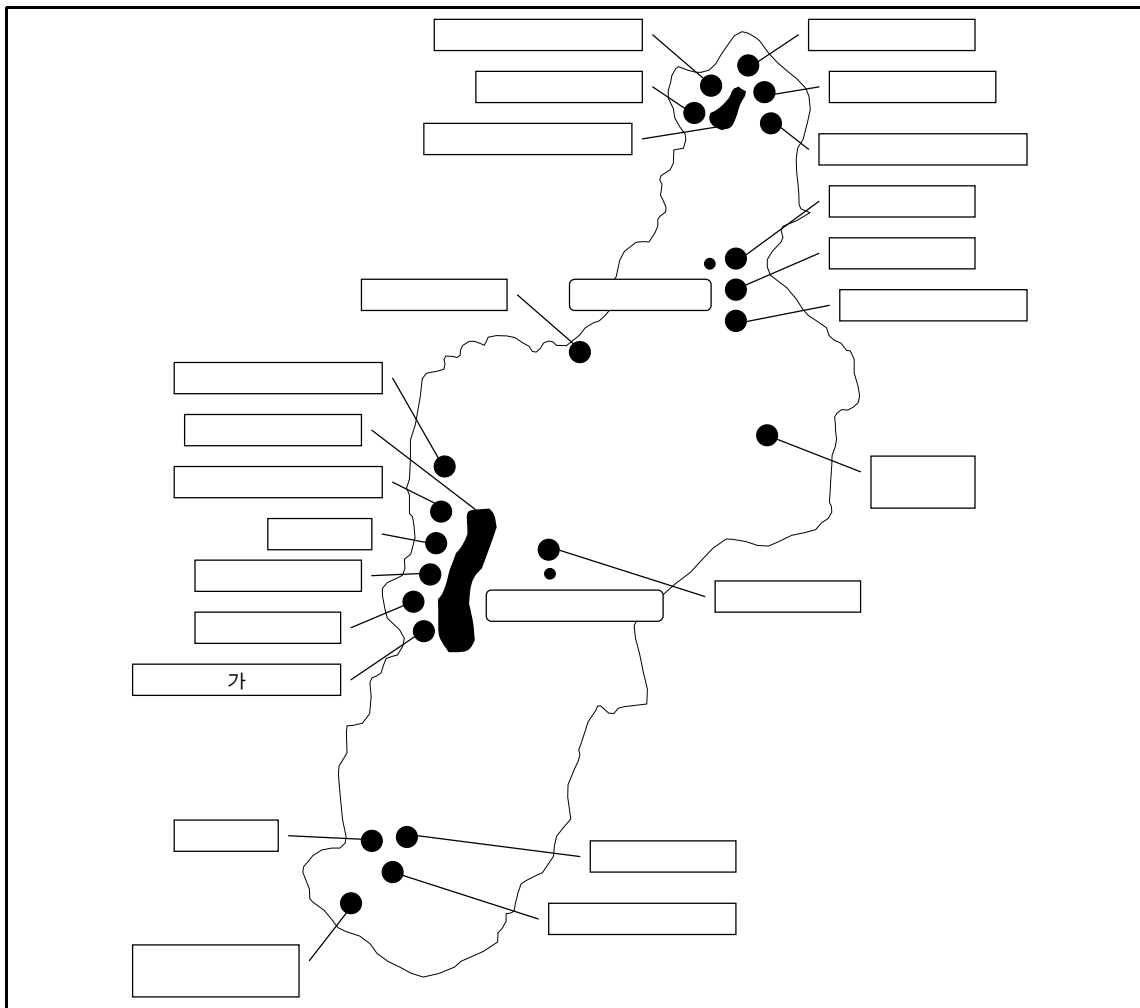
3. 서 구

- 기성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무우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현재의 한우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양질의 육우생산을 위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한우전업경영체 육성사업을 전개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한우집산화 단지 조성 및 유기질비료공장 설립사업을 적극 추진
- 장태산휴양림을 중심으로 장안동지역에 그린투어리즘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장안-오동을 연계하여 주말학습농장 조성사업과 유기농법가족농단지를 조성
- 우명지역을 중심으로 고소득작목인 시설딸기특화단지로 육성
- 많은 도시 소비자가 밀집해 있는 둔산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상설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와 농산물직거래 센터를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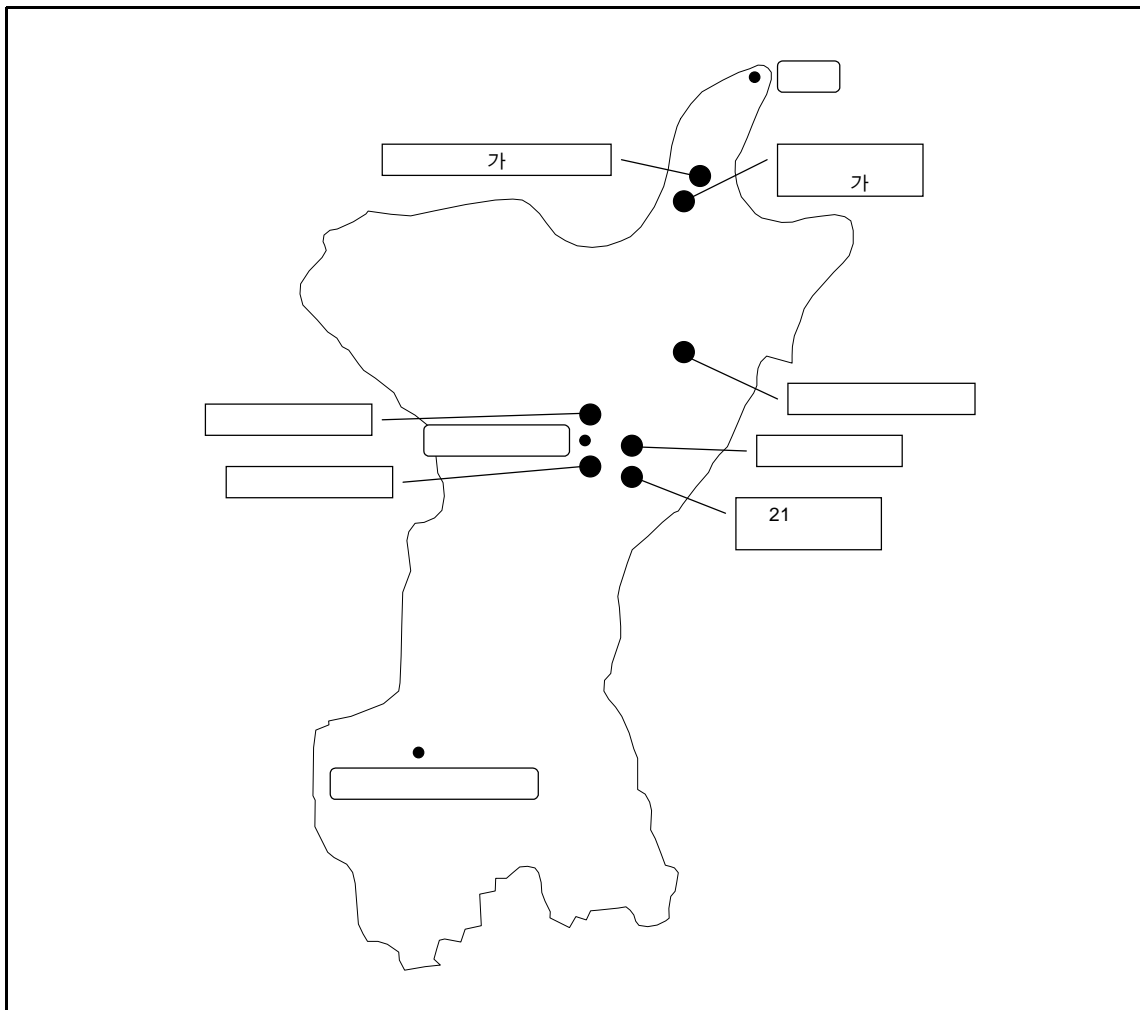
4. 유성구

- 복용-덕명지역을 중심으로 유성배 테마로드를 조성하고, 우수과수명품화사업, 이화축제 개최, 오미자특화단지, 주말학습농장, 유기농법가족농단지를 조성
- 신동-금고동을 중심으로 한우전업경영체 육성, 한우집산화단지 조성, 유기질 비료공장 설립, 절화류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둔곡동을 중심으로 옷나무특화단지를 조성
- 세동-송정동에 시설상추 및 시설방울토마토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성북지역과 연계, 민박마을 조성사업과 시루봉-방동호를 잇는 그린투어리즘사업 전개
- 농업기술센터내에 환경농업학교, 특작기술센터, 과학영농기술센터의 기능을 보강, 새로운 농업환경에 경쟁력 있게 대비함



5. 대덕구

-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미호-삼정동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육성사업, 유기농법가족농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대청호를 잇는 주변지역의 과수생산농가의 직거래사업을 적극 지원
- 계족산 자락에 위치한 산디마을을 중심으로 21세기형농촌마을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이곳을 중심으로 과수 및 신선채소 채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그린투어리즘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엄나무특화단지 및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특색있는 농촌관광 명소로 육성
- 계족산 북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이현동의 지형과 기후상의 이점을 활용하여 표고버섯특화단지를 조성



제5장 세부부문별 발전방안

제1절 명품·특작생산 증대

1. 지역특산물 육성과 브랜드화

-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수입농산물 가격경쟁력 및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과일 및 특용작물 등 특화작물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생산·육성 및 경쟁력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구조를 정비
- 유성배, 산내포도, 진잠상추 등과 같이 타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우량품종의 재배를 통해 지역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현 재배단지의 효율적인 보호·육성 및 주산지 주변을 중심으로 신규 재배단지를 확대·조성
- 고부가가치의 품종발굴을 위하여 국내의 품종별 재배현황 및 수입 농산물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 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체제 구축

가. 지역특산물 선정 및 브랜드명 지정

① 지역우수명품 차별화 지원사업

- 유성배, 산내포도에 대해서 제품의 질을 엄격히 선별하여 브랜드의 등급을 결정
- 맛, 품질 우수농가가 고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브랜드의 우수성과 신뢰감 증진, 후발농가의 제품 질 개선 노력 등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됨
-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토양유지, 종자선별·배양, 시비 등), 선별, 포장 등의 전 공정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프로그램 이행도를 엄밀히 체크
- 대전광역시장 인증마크 부여, 박스보조 등 혜택 부여

② 명품 브랜드명 지정 사업

- 지역명품, 특산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품종개량, 재배기술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공동출하 및 규격출하를 실시함.

- 명품, 특산품에 대한 공동상표를 등록하여 특산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감 향상
- 마스크, 인터넷, 광고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특산품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공동상표는 지역주민들 및 관광객들에게 공모하는 방법을 통하여 지정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함

③ 우수명품 대전광역시장 품질 추천제 시행

- 대전의 우수 농산품에 대해 대전광역시장 추천 상징마크를 부착, 출하하여 소비자의 신뢰성 제공, 타지역 농산품과의 차별화 전략 강구

④ GMP방식의 농산물 생산 지원

- 농산품에 대해 제조업체의 GMP방식 도입을 통한 품질인증, 신뢰성 확보
 - 대덕연구단지 연구소 및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농업기술 접목
- 생산(종자, 재배·양육, 소독처리, 재배환경), 수확, 선별, 출하 등 농산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해서 엄격한 공정심사가 진행되고,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성 있는 제품생산시스템 구축
- 농업기술센터, 시, 대덕연구단지 관련 연구소 협조
- 유성배, 산내 포도를 대상, 엄격한 생산공정을 거친 농가에 대해 품질인증

⑤ 「지역 명품 홍보관」 설치

- 우수 지역 농산품 홍보 전시 공간 확보
- 권역별 상설직판장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백화점 보다는 안영 농산물유통센터내 설치 우선 고려해서 시행

나. 작물별 특화단지 조성사업

-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작물별 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영농 기술지도 등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생산되는 농산품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음
- 타지역의 특화단지 사례

맹동 수박특화단지

- 1990년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 실시한 수박+옥수수의 복합영농으로 10명이 참여 한 3,000평의 규모로 시작하였음.
- 지리경제적 및 농가소득차원에서 하우스 수박의 소득성이 타 작물에 비해 월등함이 인정되었고, 매년 입식규모가 증가하여 '99년 현재에는 228명의 작목반원이 340,000평의 전문화 특화단지로 확대되었음.
- 맹동수박의 출하시기가 7월초중순의 "복" 시즌으로 전국의 최고품질로 인기도가 매우 높으며, 서울, 구리 등지의 법정도매시장에서 최고가로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고, 일본지역으로 수출하는 등 맹동수박의 농업경쟁력은 타 작물에 비해 비교우위의 위치에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특화작물별 대상사업지역 선정 및 지원대책>

- 작물재배의 경제성, 농가소득 안정성, 장래 성장잠재력, 작물재배의 기술적 안정성, 작물재배 규모, 지역내 생산 유통실태, 생산자 의지 등을 감안하여 특화작물별 대상사업지역을 선정 지원
 - 공동작목반 형성,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별 전담지도, 공동브랜드 출하, 출하 농산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유지
 - 안영농산물도매센터, 지역 백화점, 할인점 및 대형 쇼핑센터에 대한 사계절 안정적인 공급-수요체계 구축
- 장기적인 수요의 안정성, 성장성을 기반으로 주변 참여희망농가에 대해 생산 기술지도, 공동출하(유통) 등을 통해 보다 규모 있는 생산, 공급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지역 특화작물의 공급능력 확보

< 표 5-1 > 특화작물 선정 육성사업

구분	작물명	대상지역	비고
엽채류	시설 상추	유성 진잠	
근채류	시설 무우	서구 기성	
과채류	시설 오이	유성 전민	
	노지,시설 호박	유성 노은	
	시설 딸기	서구 우명	
	시설 방울토마토	유성 송정	
산채류	두릅	유성 안산	
	더덕	동구 소호	
	엄나무	대덕 장동	
	웃	유성 둔곡	
버섯류	표고버섯	대덕 이현	
약용작물	오미자	유성 덕명	
과실류	매실	동구 직동	

2. 시설채소 생산단지 확장 및 화훼단지 조성

- 극심한 노동력 부족과 임금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소위 3D작업의 기피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배시설의 기계화 및 현대화와 기술집약형 첨단 재배시설의 도입이 필요함.
- 도시민에게 4계절 지속적인 신선한 채소의 안정적 공급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채소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배시설의 현대화 추진

가. 시설채소 생산단지 확대

- 국내의 시설채소 재배 면적은 1995년말 43,000ha정도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참고로 유성구내의 시설채소 생산단지는 전체적으로는 소형 비닐하우스가 많고 중·대형 하우스 및 유리온실은 아직 적은 실정임. 유성구의 시설원예

축성재배 농가는 육성구 전체농가의 14%이며 재배면적은 육성구 밭 면적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재배 작목 중에서 오이, 호박, 상추, 딸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5-2 > 국내에서 재배되는 작목의 특성

특 성	작목
소득이 높은 작목	토마토(축성), 오이(축성), 딸기(축성)
소득이 안정된 작목	토마토(축성), 오이(축성), 오이(억제), 토마토(반축성), 딸기(축성)
노동력 이용이 효율적인 작목	오이(축성), 시설고추, 오이(반축성),성, 무(하우스)
자본 이용이 효율적인 작목	수박(반축성), 시설참외, 오이(억제), 수박(터널), 토마토(반축성)
기술 및 입지가 중요한 작목	오이(축성), 오이(반축성), 시설호박, 무(하우스)

< 표 5-3 > 주요 시설채소의 경영상 특성

작 목 명	소 득 (천원/10a)	가 격 변이계수	노동생산성 (원/시간)	자본효율	수 량 변이계수
토마토(축성)	6,813	0.13	9,482	2.0	0.25
오이(축성)	6,607	0.09	8,515	1.5	0.32
딸기(축성)	5,138	0.15	6,877	1.9	0.21
토마토(반축성)	4,971	0.25	7,670	2.1	0.23
오이(반축성)	4,703	0.13	6,660	1.6	0.36
오이(억제)	4,384	0.13	7,897	2.2	0.20
시설고추	4,335	0.26	5,334	1.2	0.27
딸기(반축성)	4,042	0.20	5,826	1.6	0.19
시설참외	3,436	0.09	5,637	2.2	0.15
수박(반축성)	2,510	0.07	6,603	2.3	0.13
시설호박	2,227	0.10	4,566	1.4	0.34
시설상추	1,760	0.27	4,674	1.4	0.15
수박(터널)	1,266	0.23	5,369	2.1	0.24
무(하우스)	915	0.21	6,352	1.4	0.28
배추(하우스)	596	0.30	3,963	0.9	0.27

- 공동 육묘장 설치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생산된 채소의 균형된 소비시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재배 환경을 조성함
 - 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 5개 지역을 선정
 - 각 지역별로 작목 선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 2005년 이후 매년 1개 지역씩 조성

< 표 5-4 > 채소재배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문 제 점	대 응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장채소, 양념채소와 일부 시설채소는 과잉 또는 부족생산으로 가격 불안정이 주기적으로 발생 ○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수요가 줄고 가격 경쟁력이 약화 ○ 농가당 전업규모화와 단지화가 미흡하여 생산성, 품질, 시장교섭 능력이 취약 ○ 산지에서의 상품화와 브랜드화가 부족하여 소비자의 신뢰도가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작목에 대한 농업관측을 강화하고 실형성 높은 유통예고제 도입 ○ 전업농육성, 주산단지 조성, 노후시설의 개량과 자동화로 생산성 제고,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자율적인 조절, 경영, 유통 등 기능을 강화 ○ 유리 또는 PET온실은 전체적 수급조건을 고려하여 지원 ○ 국제경쟁력 있는 특정품목은 수출전략화 육성

나. 시설재배단지의 현대화

- 정부는 WTO체제의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10년 간 16,225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목표 아래 원예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비닐하우스 표준화 시설, 비닐 반자동온실 보급, 비닐 자동화하우스 보급, 수막재배시설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설재배단지 현대화 사업 중점 추진분야

- | | |
|----------------|---------------|
| • 비닐하우스 표준화 시설 | • 비닐 반자동온실 보급 |
| • 비닐 자동화하우스 보급 | • 수막재배시설 |
| • 수경재배시설 | • 비가림재배시설 |
| • 채소공동육묘장 | • 시설채소 재배시설 |

- 재배시설의 현대화는 농업기술센터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며 첨단 재배시설 및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필요한 영농정보를 제공하는 체제 구축

< 표 5-5 > 재배시설의 작업별 기계화, 자동화 내용

구분	작업명	기계화, 자동화 내용	소요 기기
환경관리	환기	천창, 측창의 자동 개폐	모터 및 개폐기
	난방	난방기의 자동 온도조절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CO ₂ 농도	CO ₂ 농도 자동 제어	CO ₂ 발생기
	냉방	공기냉각 자동제어	패드 앤드 팬
	복합환경조절	복합환경제어	위의 모든 기기와 컴퓨터
양액관리	양액공급	자동 공급	모터, 펌프 및 배관
	양액조제	자동 조제	모터, 계량펌프 및 양액 센서
	양액관리	무인양액관리	위의 모든 기기와 컴퓨터
병충해방제	농약살포	무인 살포	무인 방제기
이식 재배관리	이식	이식 기계화	이식기, 이식 로봇
	재배통 이동	자동 이동 및 간격조절	베드 이송 시스템
	적심, 적아	무인 적심, 적아	농용 로봇
수확 운반 선별	수확	수확 기계화	수확기, 수확 로봇
	수확 보조	자율 주행	자율주행 작업차
	운반	운반 기계화	운반차, 무인 운송시스템
	선별	선별 기계화	선별기, 등급선별기

다. 시설채소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지도자대전광역시연합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여 시설채소 생산자 조직을 조직하여 육성함.
- 추진방침
 - 재배면적이 많은 품목위주로 생산자단체 협의체구성 운영활성화 유도

-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업관측정보 등을 분석 적정재배, 작기조정, 출하조절 등을 통한 시설채소 제값 받기 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자구대책 강구
- 가격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 개선사항 발굴 반영
- 추진계획
 - 운영대상 : 지역내 특성화된 시설채소 품목
 - 운영 활성화 유도
 - 회의개최 : 정기회 (연2회) 및 임시회를 개최
 - 협의사항
 - 수요에 맞는 적정재배 및 생산대책,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대책
 -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개선 방안
 - 기타 정부시책 추진 및 제도개선사항 등
- 기대효과
 - 생산자조직 회원상호간 생산 및 유통정보 교환으로 경영능력향상
 - 시설채소 수취가격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영농법인체 설립 육성

- 겸업농가 및 고령자농가 증가에 따른 경지수탁 농업법인체 형성
- 규모경제와 첨단기술 농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농업법인 경영체 집중육성, 농업생산비 절감, 고품질 농업 실현
-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통한 부실화 방지 및 경영, 판매기법의 발전 도모
- 품목별 전문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체 육성을 통해 생산, 유통, 가공의 수직적 계열화 체계 구축
- 2005년까지 1개 법인, 2010년까지 2개 법인 설립으로 경쟁체제 구축
 - 인근 충남·북도와 연계사업 추진 검토

< 표 5-6 > 과수재배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구 분	문 제 점	대 응 전 략
공 통	○적정규모 이하의 영세농이 많아 상품성 향상과 경영개선 지연	○전업농 육성 등 대규모화 추진으로 비용절감과 소득증대
	○노동력 수요가 높으나 기계화 작업 비율이 저조하여 인건비의 비중이 높음	○생력체계의 구축과 선별 및 기계화로 부족인력에 대한 대처 및 상품성 향상
	○산지의 선별, 포장, 저장기능이 미흡하여 상품성의 저하	○포장센터 설치 확대와 하급상품의 가공제품화
배	○노동력 부족 및 재배관리 미흡으로 품질 저하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반 체계화
	○수출대상국 편중	○병충해 발생, 예찰 전산화 등 종합관리기술개발
포 도	○캡벨어리 품종으로 홍수 출하	○다수확 우량품종 개발
	○생육기 강우에 의한 일조량 부족	○엽권 및 모자이크 바이러스 조기진단법 개발 ○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확충

마. 도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화훼단지 확대 조성

① 전국의 화훼재배 현황

- 1990이후 UR대응품목으로 유리온실 등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을 집중 육성하여 재배농가 및 면적 증가

< 표 5-7 > 전국 화훼류 재배 현황

구 분		1985	1990	1997	1998	'98/'90
전국	재배농가(호)	5,365	8,945	13,047	12,965	145.0%
	재배면적(ha)	2,249	3,503	5,372	5,486	156.6%
	생산액(억원)	746	2,393	5,800	5,850	244.5%
1인당 연소비액(원)		1,823	5,616	12,611	12,449	221.6%

- 1990이후 꽃 소비증가에 따라 전 품목의 재배면적 및 생산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미재배 면적의 증가에 따라 절화류가 대폭 증가함.

- 절화류 중심의 생산체제는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절화류는 총재배면적의 44.4% 총생산액의 46.5%를 차지함
- 절화 중 장미, 국화, 백합 생산액이 절화류 전체 생산액의 67% 차지함

< 표 5-8 > 전국 주요 화훼류 재배면적 및 생산액

구 분		1990	1995	1997	1998	'98/'90(%)
재배면적 (ha)	절화류	1,006	2,323	2,559	2,437	242
	분화류	787	1,148	1,152	1,093	138
	구근류	85	91	86	76	89
	화목류	377	510	505	598	158
생 산 액 (억원)	절화류	592	2,258	2,787	2,725	460
	분화류	995	1,890	2,014	2,139	214
	구근류	46	69	90	66	143
	화목류	195	196	257	292	149

② 화훼단지 확대·조성

- 도시지역으로부터의 화훼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대응해 화훼의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꾀하고, 장래 유망한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육성키 위해 화훼단지 확대 조성
- 국제경쟁력이 높은 전략작목 가운데 하나인 화훼류의 생산확대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 번식온실 확충 등의 사업 추진
- 화훼단지가 집중해 있는 유성구의 경우 화훼재배 농가 및 면적은 유성구 농가 및 밭 면적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중 분화류와 관상수의 재배가 81%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대비 생산비율이 분화류 1.15%, 관상수 1.56%로 상대적으로 타 농산물에 비해서 비중이 높음
- 공급기반이 매우 취약한 절화류, 구근류를 중심으로 화훼재배 농가 확대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필요
 - 특히 도시 수요를 고려한 대단위 절화류 생산단지의 조성이 필요

절화류 전문생산단지 조성

- 국화, 장미를 중심의 절화류 첨단생산시설 조성
- 화훼농가의 의견을 반영, 금고동 매립장 인근지역 1만평 규모 부지 활용
- 쓰레기소각장 폐열 활용 난방비 절감

제2절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

- 증산 중심의 영농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육성 -

1. 친환경 농업의 범위

- 환경농업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생태계의 순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함
- 환경농업은 좁은 의미에서 “유기농업” 등의 특수농법을 지칭하기도 하나, 작물양분 종합관리(INM), 병해충종합관리(IPM), 천적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 이용 등을 활용한 형태의 저투입 농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환경농업의 영역은 ① 토양, 지력 회복 ② 농작업 환경 개선 ③ 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④ 수질, 대기오염 및 농업용수 오염 방지 ⑤ 농업, 농촌환경 보존(경관 등 농업의 다기능) ⑥ 자연 생태계 유지 회복 등 매우 광범위함

2. 친환경 농업 육성전략

- 생산단계에서는 재래농법 추진과 생산자 조직화, 벤치마킹기법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확산, 그리고 비점 오염원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유통단계에서는 유통센터 설립 및 직거래 확대, 친환경농산물 차별화, 품질인증제의 정착, 저장 가공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
- 소비자단계에서는 지속적 홍보와 각종 판매방법의 개발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함
-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을 수립, 관련기술의 개발, 각종 관련사업의 활성화, 생산자 조직화 지원, 친환경농업 데이터베이스화, 검사 및 재개발, 사업전후 평가,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유통시설 확충 지원, 홍보 지원, 판매점 설치 및 지원,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의 역할을 담당

3.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

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소비지 직판장」과의 연계

-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이 유통업체별로 다품목 소량이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하여 판매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
- 유통업체별 수급불균형에 의한 단품 또는 과잉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만 야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 친환경농산물의 수집, 분산기능을 수행하고, 물류비용의 절감과 적정가격 형성 등 친환경농산물 도매기능 수행을 위해 소비지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운영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농산물유통센터의 일부공간을 시설임대 형식으로 운영
 - 장기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량이 일정규모를 상회할 때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주체간의 연계로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센터로 확대 운영
- 우선 중구 안영농산물유통센터내 및 대덕구 지역에 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운영
 - 점차 5개구 확대 설치 운영
- 각 구별로 1개소씩 「소비지 직판장」 건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와 연계 판매
 - 소비자 밀집 주거지역(대단위 아파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에 직거래 추진
 - 2003년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없는 서구 둔산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직판장」 개설

나. 뉴미디어를 활용 판매 및 친환경농산물 전문택배사업 추진

- 인터넷 몰, 사이버 쇼핑, 텔레마케팅, 케이블 TV 등을 이용,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홍보, 교육 실시
 - 자치단체에서 지역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이해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교육 실시

- 판매 및 택배사업 추진
 - 택배 배달원이 소비자에게 생산자를 대신하여 상품 설명, 소비자 의견 전달, 수령 등 친환경농산물 교육 파수꾼 역할 수행
 - 택배배달원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애착과 사명감이 높은 사람으로 선정하여 아파트주민, 맞벌이 주부 등을 주 소비층으로 공략

다.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친환경농산물은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기 때문에 각종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최종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친환경농산물의 수집분산과 가격형성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해 나감
- 환경농업단체와 지역 환경농업 생산자, 소비자단체간에 정보교환의 매개기능을 확대하고, 이들 단체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연계하는 정보망을 형성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생산방법(농약, 비료 사용량, 사용이유, 유의점 등), 향후 개선계획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신뢰 구축

라. 환경농산물 저장·가공 시설 설치

- 환경농산물 수급조정, 선도유지를 위해 주요 산지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내의 저장시설에 대한 예냉시설 지원
- 가공시 철저한 환경기준 준수 이행

4. 유기농업사업 추진

가. 유기농업사업 추진방향

- 품질 좋고 안전한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공급으로 소비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장기적인 농가소득 증대, 농경지의 지력회복 및 농촌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유기농법에 의한 생산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사업규모 적극 확대
- 국내에서는 유기농법재배가 확산되고 있으나 유기농법 비율은 선진국의 3~

5%에 불과한 실정임.

-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유기농업에 의한 농작물 생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일정부분 보상해 주기 위해 시의 재정지원 추진
- 유기농업에 의한 생산품의 가격이 다소 비싸므로 이러한 상품들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시지역내 소비자들과의 직접거래 추진

유기농법에 의한 생산품의 품질인증제도

- 농림부와 국립 농산물 검사소(이하 농검)는 1992년부터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음
- 품질인증은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일반재배], [축산물]등 5종으로 시행되고 있음. 농가들이 농검에 품질인증 참여를 요청하면 전국 농검 출장소 직원들은 1개월에 2차례씩 농가를 방문해 인증기준에 따라 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점검함.

나. 유기농산물 생산 촉진

- 2010년까지 전체 농산물 대비 유기농산물 비중을 2%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유기농업 실천농가 확대, 재배면적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유기농산물 생산을 증대해 나감
 - 유기농업육성대책은 농약, 화학비료 등 일체의 화학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으로 한정하여 추진
- 유기농자재에 대한 『표준사용기준』 마련
 - 유기농자재별로 사용가능조건, 용도, 적정사용기준, 과다사용시 문제점, 사용상의 유의사항 등을 정리
- 『유기농업기사제도』 도입, 유기농업 전문인력 확보
 - 유기식품 품질인증, 재배·생산·가공 기술지도 및 대농업인 교육
-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목표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유기농업 확대
 - (현재)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재배 → (2005년 이후) 유기농 재배로 단계적 이행
- 소비자 신뢰제고와 홍보 강화로 유기농산물 소비 확대

-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
- 「유기농산물 전시, 판매전」 개최(분기별 1회)
- 「유기농산물 판매코너」 확대 설치
- 정부 및 민간단체 주관의 해외기획 판매전 참가 유도 확대
- 학교, 교육원, 기관단체의 단체급식소를 중심으로 유기농산물 우선 공급 추진 등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발굴

다. 「유기농법 가족농단지」 조성

- 유기, 자연, 토종농업 및 기타 농업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가족농단지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성, 필요한 시설 지원
- 20ha 규모 이상(소유농지 2.0ha 이하 농가로서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집단)의 집단화된 지역에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 지원대상 작목 : 벼, 일반농산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 재래농법 추진
 - 토종농법, 오리농법, 청정농법, 미꾸라지농법 등 재래적인 방법에 의한 농법 확대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추진
- 환경농업 교육사업
 - IPM, INM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 환경농업단체 교육·훈련지원사업
- 단지당 지원시설, 장비 범위
 - 공동이용시설 :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장비류, 유기자원 생산시설·장비(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등), 화학비료·농약 대체자재 생산시설(목초액 등), 축산분뇨 액비화시설·장비, 기타 시설장비(오리농법, 유통판매시설, 토비살포기 등)
 - 개별생산시설 : 환경친화형 비닐하우스, 축사, 기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사업량 : 2004년부터 매년 1개 단지씩 2010년까지 7개 단지 조성
- 「유기농업육성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 참여농가대표 2-3인, 친환경농업단체 지회장, 행정·지도·농협 관계자 구성

5. 친환경농업 실천 환경조성

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

- 논 오리방사 등을 통한 벼생산 농가 매년 3농가 이상 지원 육성
- 목재파쇄기를 활용한 유기농업 실천 농가를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50 농가 이상 육성
- 산성화된 토양개량을 위해 비료·농약사용 절감 실천기반 마련
 - 2010년까지 80%농가 참여 목표로 설정, 매년 1,500~2,500톤 규모의 토양개량제 확대 공급
 - 친환경 농업의 전환, 육성 유도를 위한 유기질 비료 공급 / 600톤
- 사료 및 녹비작물 재배를 위한 ‘푸른 들 가꾸기’ 사업 전개

나. 농촌오염 실태파악, 모니터링 체계 구축(2005년까지)

- 토양과 수질오염에 대한 전체적인 오염자료 D/B화, 관리
 -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및 대전농업기술센터 인력 및 기술협조 진행
- 농업환경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토양, 수질, 대기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오염의 진행도 파악

다. 농업오염물질의 감소 및 자원화

- 지역내 전체농가가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화 사업 참여 유도(2005년까지)
 - 시비 합리화 및 효율화 방안 강구 및 농민 홍보·교육 병행
- 환경친화적인 농약사용 권장 및 기계제초, 정밀농업 도입으로 사용량 감소 유도(2010년까지)
- 농업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2010년까지)
 - 가축분뇨 재활용 등
- 지역단위 환경관리시스템 개발운영(2010년까지)
 -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시 재정지원 및 민간부문 참여 인센티브 부여

라. 「환경농업학교」 설치를 통한 친환경농업 연구기능 부여

- 최신 친환경농법의 연구, 처리·보관·가공방법의 개발, 새로운 친환경 품목 개발 등에 관한 지속적 연구를 위해 환경농업학교 개설
- 대전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설치, 현재 각종 환경농업관련 정보·기술 제공, 교육·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 운영
 - 인근 충남·북 농업기술센터와의 교류 협력 증대
 - 환경농업 D/B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피드백체계 확립
 - 각종 이벤트 기획 및 추진 전담 브레인 스토밍 역할 담당

마. 「친환경 논농업 직접지불제」 전면 확대 시행

- 논외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을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전면 실시 확대
- 실경작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비료 절감시용시 보조금 지급수준을 현실성 있게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나감

※지급단가 : 농업진흥지역밖 40만원, 농업진흥지역 50만원 / ha당

바.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농업 실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의 억제를 위하여 사용 권장량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
 - 환경농업 학교를 활용한 상시 교육체계 구축
 -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농가에 대해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규제 및 이에 대신한 환경농업 실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대책 적극 강구

제3절 그린투어리즘 사업 확대 추진

1. 그 동안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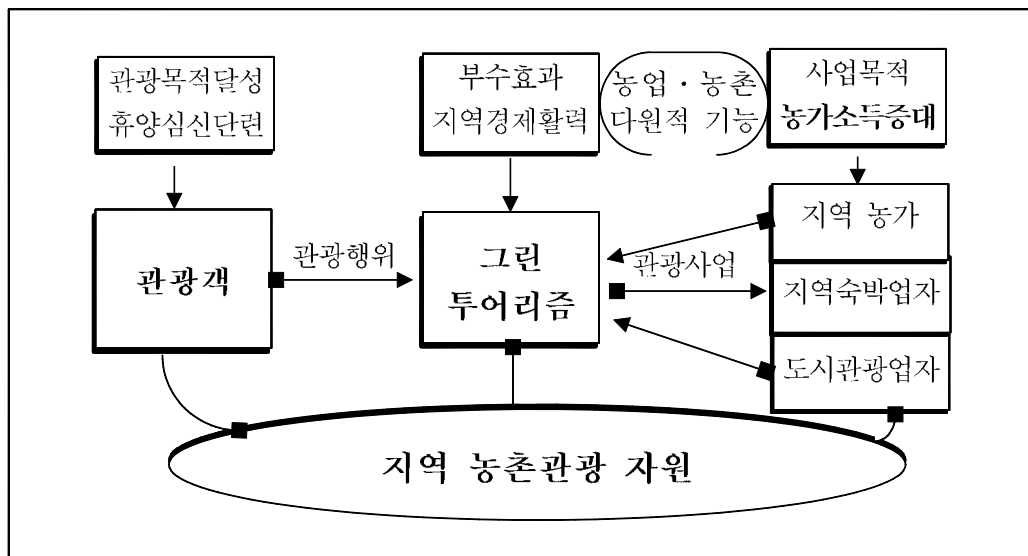
- 1인 중심의 개발운영
 - 대부분의 관광농원의 소수인에 의해 개발 및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공동이익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농업 부대시설의 활용도 저조
 - 농산물 직매장, 축사, 창고 등의 농업 부대시설 이용도가 아주 저조하여 자원의 유희화 내지 자원의 낭비를 초래
-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 및 운영자금의 부족
- 관광농원의 전문화, 특성화 부족
 - 지역의 매력을 관광상품화 하여 보고, 느끼고, 맛보고, 머무는 「관광과 자연학습교육의 장」을 마련, 이를 이벤트화 하여 내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영마인드 부족
 - 다수의 관광농원 경영주들은 이용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농원관리, 이익관리, 고객관리,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등 경영능력에 한계를 보임

2. 도시농가의 관광자원화

가. 그린투어리즘 추진전략

① 그린투어리즘의 개념

- 그린투어리즘은 지역숙박업자, 도시관광업자 및 농가가 농촌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도시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됨



< 그림 5-1 > 그린투어리즘 개념도

그린투어리즘 컨셉

- 심신의 안락감 : 농촌경관의 치유기능, 인정과 친절
- 이 지역에만 있는 것 :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환경, 신선하고 풍부 농축산물
- 5감을 통한 체험
- 풍부한 체험테마 : 농업체험, 지역심층탐방, 도농간의 교류, 문화체험
- 여행의 효율성 : 접근 용이, 장기여행의 베이스캠프, 농촌 패키지 투어
(배, 포도, 딸기 과수원 + 온천욕 + 신선채소 + 지역의 별미)

② 그린투어리즘 추진과제

세 부분 야	추진 내용
소프트웨어 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그린투어리즘(녹색여가·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 농업인·주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경영매뉴얼 개발 • 전문인력육성 및 자격제도 도입 등 그린투어리즘 리더 육성
하드웨어 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pilot village) 조성 • 기존 온천관광자원개발사업을 ‘팜스테이(농가숙박)’ 중심으로 하여 발전 유도 •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현장학습장 개발 • 환경 친화적인 농업 시범단지 육성
시스템 구축 및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그린투어리즘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그린투어리즘 민간추진기관 설립 • 그린투어리즘 지원 체제 구성

③ 그린투어리즘 육성전략

- 지역 민박농가 조직을 구축하여 관련정보의 파악과 공동 홍보를 전개하고 민박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 낙후된 민박시설을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함. 선진국의 녹색관광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개발하여 성공하였음
-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농업에 종사해온 농업인들은 관광경영 및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및 기술이 부족하므로 자치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주체적인 상품개발과 아이디어의 제공이 필요하며 농업인에게 관광경영 및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는 교육활동이 필요함

나. 대전지역의 농촌관광사업 성공 가능성

-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도시민들의 주변 농촌지역의 방문이 급증할 전망이다이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대전은 계룡산을 중심으로 계족산, 장태산, 식장산, 보문산 등 수려한 산악지형을 보유하고 있고, 대청호를 중심으로 갑천 및 유등천 상류, 수통골 등 주변에 친숙한 수변공간이 풍부하여 이들 자연환경이 훌륭한 농촌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함
- 좋은 자연환경을 살려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전체부락의 농가가 참여하여 생산하는 다채롭고 신선한 농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농민과 함께 하는 농사체험 프로그램을 흥미있게 구성한다면
 - 농민들의 농외소득 증대와 도시민을 위한 좋은 휴양공간 제공 등 사업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사업임
- 정부에서도 녹색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녹색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농림부의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사업계획

- 2002년부터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로서 「녹색여가·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여가·체험 프로그램과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할 농민을 위한 경영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계획
- 녹색여가·체험마을 조성비 54억원을 비롯해 2002년도 그린투어리즘 사업비로 135억원을 책정.
- 2001년 하반기에 그린투어리즘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농촌마을과 수요자인 도시의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도시농촌교류추진협의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음.

다. 대전지역 「그린투어리즘」 구축사업

-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본격적인 여가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이 새로운 관광지

로 부상하면서 최근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대도시 인접지역농업의 여건과 자원을 활용, 특색있는 그린투어리즘을 개발, 도시민을 위한 휴식·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킴

① 사업추진 방향

- 수려한 산세와 수변공간을 활용, 대도시 주민의 최접근성의 이점을 살려 당일형, 체류형 그린 투어리즘 개발
- 참여농가가 고르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공정성 있게 추진
- 과거 관광농원의 실패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성공적인 벤처 비즈니스로서의 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 내용

- 대상지역 : 우선사업으로 각 자치구별로 1개 지역 조성
 - 지역 참여농가의 규모, 지도자의 의지, 중심자원 및 연계자원, 프로그램 활용도 등 사업 성공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
 - 우선추진 대상지역 : 직동(대청호), 유성구 성북·세동(계룡산), 서구 장안동(장태산), 대덕구 장동(계족산), 중구 침산동(유등천 상류)
 - 장기적으로 추가 참여희망 부락(마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 사업추진
- 참여농가 민박조성, 주차장·직판장 조성, 체험민박 프로그램 운영
- 참여농가별 분담 작목선정 지원 : 건강작목(약초, 유실수 등), 무농약 신선채소 재배

< 표 5-9 > 그린투어리즘 대상지역 특성

지역명	중심자원	연계자원	주요 프로그램	참여농가
직동	대청호	노고산성, 일주도로, 등산로	사랑방이야기, 메주만들기, 반딧불이 체험, 숲속의 집 운영	15가구
성북,세동	계룡산	시루봉 등산로, 방동저수지	주말농장운영, 세동지남시, 전통음식 맛보기	20가구
장안	장태산	휴양림, 용태울저수지	휴양림건강체험 꽃감만들기, 가족남시	20가구
장동	계족산	산디민속마을 계족산성	배·포도·복숭아 수확 신선채소채취, 옷·엄나무 음식 체험	25가구
침산	유등천	여름철 물놀이	신선채소 채취, 주말가족 농장	10가구

- 신규 프로그램 보완
 - ※ 도·농 자매결연 행사지원, 과일나무 1주 갖기, 소 1두 갖기, 주말농원 임대 등의 오퍼제도 도입
- 도시지역 소비자 및 각종 단체와 도농교류 네트워크 형성
 - 자매결연, 회원제 사업,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의미있는 인연을 만들고 고정 고객 확보
- 유치원, 초중고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교육
- 숙박시설 등급제 부여 관리
 - ※ 장기적으로 공동마케팅을 위해 지역전체 통합 관리

3. 지역농업자원의 관광자원화

가. 지역특작물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유성배】

- 유성은 배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유성배"가 브랜드화 되어가고 있음. 지금까지 유성의 배는 그 자체의 판매가격만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으나

장차 배의 매출을 통해서가 아닌 배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의 아이টে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유성 특산물인 배를 테마로 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및 체험공간으로서의 유성배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배꽃의 개화기에는 ‘이화(梨花)축제’를 개최하여 유성온천 및 계룡산과 연계한 관광 명소화 추진.
- 유성배 테마로드 및 특화작물단지, 그리고 기존의 농촌도로를 타 지역의 도로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도로로 개발함으로써 인근 지역으로부터 찾아드는 유성으로 만듦.

【산내 포도】

- 대대로 이어온 포도주산단지 답게 지역특성과 토양 및 기후조건이 적합하여 당도의 향상, 시설축성재배로 인한 저농약 포도의 생산으로 인기가 늘어나고 있어 옥천간 도로를 중심으로 한 직판매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당도를 높이고 땅심을 높이기 위한 퇴비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화학비료 시비를 억제 하는 등 친환경농법 및 유기재배농업을 통해 도시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신뢰감 있는 ‘산내포도’의 명성을 높여 나감
- 도시민이 포도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따서 사가거나 먹고 갈 수 있는 작은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산내농협을 중심으로 ‘산내포도 축제’를 추진

나. 농사체험 및 현장학습장 확대 조성

- 국내 토종식물의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농촌과 자연 환경에 관한 현장학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함.
- 도심에 인접한 휴경지를 개발하여 ‘주말학습농장’을 조성하고 이를 대전시민에게 보급하여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농지 활용률을 제고함
- 자치구별 1개소씩 대전지역 5개 조성

다. 환경친화적인 농업시범단지 연계 관광농업 육성

- 도시농업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친환경영농 시범단지로 육성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도시의 전원적인 미를 살릴 수 있도록 조성함. 또한 도시민과 계약을

통한 영농 및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동시범단지로 가꾸어 도·농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대표적인 마을을 조성함

친환경영농시범단지

- 사업내용 :
 - 유기·자연·토종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소농 단지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성하고 필요한 시설을 지원
 - 유기·자연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중소농단지는 가급적 상수원 보호구역 및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조성하되 그 이외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단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품질인증 등 유통지원
- 사업대상지 : 동구 직동

- ‘친환경영농시범단지’를 녹색관광(Green Tour) 지역으로 발전시켜 관광객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생활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휴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민박마을」 조성사업 : 그린투어리즘 사업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배, 포도 등 농특산물 생산농가, 15마을(부락) 선정
 - 200~300개의 참여농가 확보, 등급(A~C) 선정
 - 시 전역의 민박농가정보 통합 운영, 전국 민박농가정보 공유

제4절 생산기반의 정비 및 현대화

1. 농업생산 인프라 정비 및 농촌 현대화 사업

- 생산기술의 발달, 생산품목의 다양화, 노동력의 감소 등 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고도의 생산기반 정비를 추진하고, 고성능 기계의 도입과 시설화 등을 촉진하는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 수리시설, 농로의 정비 등을 추진
- 농업용수개발
 - 가뭄상습지역을 대상으로 관정, 집수암거 설치, 용·배수로 설치로 농촌용수의 원활한 확보 공급
 - 현재까지는 논 위주로 용수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밭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 대체작목의 개발을 위한 밭 용수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
- 경지정리
 -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지규모의 대구획화, 소규모 집단농지의 간이 경지정리 사업 추진
 - 특히 생산기반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수원공, 용수 이용시설, 밭 경지정리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 정비
 - 2010년까지 대상지에 대한 사업 완결
- 밭농사에서 고품질생산과 연중재배를 위해서 관개와 방제, 동해, 상해(霜害) 방지 등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관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홍수피해와 습해 등을 방지하여 고품질의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배수로와 배수장의 정비를 추진.

대전시의 근교농촌 현대화 사업

- 내용 : 농촌도로, 농수로 개보수,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 및 주택개량 사업 등 97개 단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997년 - 2003년 (7개년간) / 1,266억원

2. 다양하고 신속한 연결망 형성

- 신선도 높은 채소 및 과실을 대도시 소비자와 시장에 신속히 공급하는 유통망의 정비와 함께 생산지 연결망 형성
- 도시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와 연계한 기간 농도망의 신설·정비
 -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 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 농로, 사업여건과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구 우선 선정 추진
- 특히 농로나 배수로는 도시화 등에 따라 생활기반 시설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

3.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 농촌의 정주성 높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아기 교육환경의 개선, 상하수도시설의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제 구축.
- 대전시에서는 근교농촌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도로 및 농수로 개보수 등 9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상 : 11개동 201개 자연마을
- 사업기간 : 1997년-2003년(7개년)
- 사업예산 : 1,266억원
- 사업내용 : 생활기반조성, 주거환경개선, 영농기반조성, 농축산소득증대, 문화복지 등 6개분야

- 정부에서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시 자치구의 준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록정비 등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음. 시에서는 정부의 시책을 활용하여 지역농가의 정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농산품 저장시설 구축

- 과일 저온 저장시설은 총 34동의 저장소에 총면적 687.5평을 보유하고 있음. 이 중 구축동에 15개의 저장소(307.5평)가 있으며 최근 5년 동안에 신축된 저장소는 17개동임

대전시의 저온저장소에 대한 2002년도 사업계획

- 대전시는 유성배 명품육성사업으로 선별기 및 저온저장고를 위한 예산으로 9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음

- 농산물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원거리 복합 환경조절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함



< 그림 5-2 > 농산물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

5.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가. 첨단 및 요소기술의 데이터베이스화

- 21세기 지식·정보기반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부문에서도 정보통신기술과의 접목으로 농업의 지식산업화는 불가피해 졌으며 연구소, 학교, 기관 등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들은 농업현장의 농업인들에게 잘 전달되어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어디서나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이에 따라 고소득의 농업에 필요한 첨단 및 요소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항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농업정보시스템(AIS)을 구축함

나. 지속적인 농업정보시스템(AIS) 기능보완 및 담당기관 조직화

- 일반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 항목으로 농업정책정보, 기상정보, 농산물 시황정보, 작물생산정보, 농업자재정보, 원예정보, 해외농업정보, 금융정보, 기술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축하여 AIS의 기능을 보완함
- AIS는 필요한 농업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수요자의 정보요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하며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농업 산·관·학 협동체계」에 속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담당함.

다. 유관기관내 관련정보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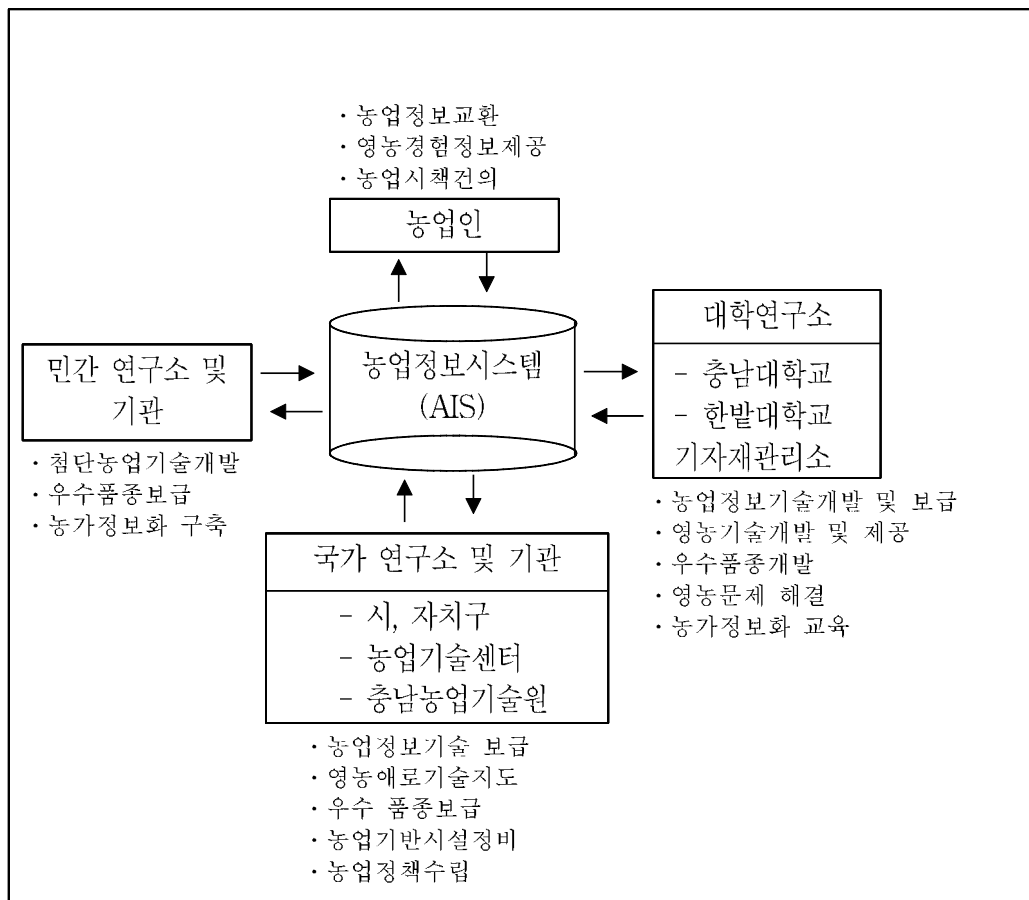
- 또한 지역내 유관기관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농업경영에 필요한 Total Solution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라. Interactive System 개발

- 또한 AIS를 농업전문가와 농업인, 동호회원들 사이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Interactive System으로 개발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업정보를 상호교환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형태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마. 농가의 정보화 및 농업경영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 AIS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가의 정보화 및 농업경영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활용실적이 높은 농업경영인에게는 지식농업인으로 선정하는 등 적절한 보상제도 수립



< 그림 5-3 >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도

제5절 첨단농업기술 개발 보급

1. 첨단농업기술 사업화 방향

가. 추진방향

- 지역에 적합한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특작재배기술 중점 개발 보급
- 시험, 연구로 개발된 품종, 기술 등을 농업인에게 보급
- 소득작물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과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술 보급
- 농작물 병해충 방제기술 및 지속영농을 위한 환경농업 실천

나. 중점추진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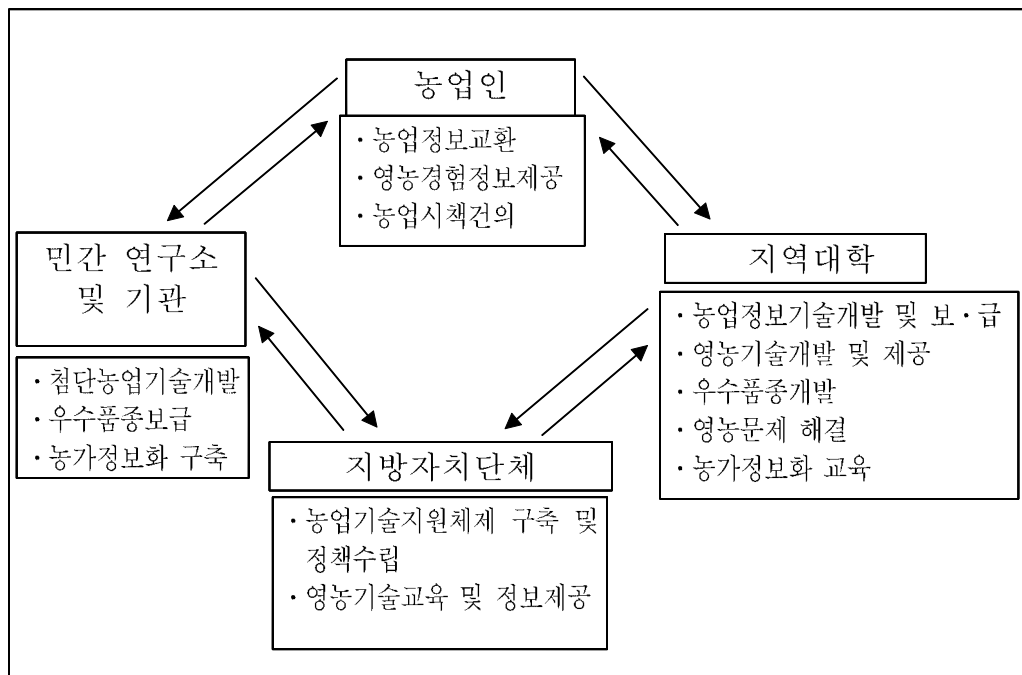
- 새로운 우량품종 시범증식과 생력재배기술을 통한 경영비 절감
- 생산시설의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
- 농약, 비료 사용량의 절감기술 보급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 기상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기술 연구개발 촉진

2. 생산관리체계의 현대화 및 첨단과학을 통한 신제품개발

-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일렉트로닉스·메가트로닉스 등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기술과 고감도센서를 이용한 생산관리시스템, 절약에너지 등 자원의 유효 이용기술을 개발·보급
- 고품질로 규격이 갖추어진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光기술을 활용한 간편하고 정밀도 검사가 가능한 품질평가법이나 수확 후의 품질보전기술(포스트 하베스트)을 개발·보급
- 생물공학적 기법의 활용과 유전자원의 탐색·보전을 통해서 고품질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작물과 지역에 적합한 품종개발을 추진함.
- 또한 우량종묘의 증식기술 보급, 생태계를 이용한 방제법 및 병해충에 강한 신제품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소비확대를 위해 특색 있는 생산품 개발

3. 산·학·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대전시, 유성구청,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소, 각 대학 연구소 및 대덕연구단지 등 국가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업 산·학·연·관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 ① 첨단 농업기술의 개발과 지도
 -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동애로기술의 즉각적인 해결과 첨단 농업기술의 전파
 - ② 농업의 고부가치화 추구
 -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농업이용형 산업의 진출 증대
 - ③ 농업정보의 통합과 전달
 - 지역종업에 유익한 농업정보의 체계적 정비, 지역내 산재한 농업정보센터의 통합, 농업정보의 신속한 전달
 - ④ 농업교육 시스템의 체계화
 - 지역내 산만한 지역 농업교육 시스템의 정비를 통한 중복교육 방지, 새로운 산학협동체제 구축
 - ⑤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발전
 - 환경과 기술이 양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유지 실현과 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다양한 농업기술의 발전, 친환경적 공간의 조성
 - ⑥ 지역농업·지역경제의 활성화
 - 테크노파크의 실현을 통한 파급효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킴
- 이와는 별도로 장기적으로 지역의 특화작물 생산관련 실증적 연구와 신기술 보급을 위한 「특작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시험연구기관 및 산·학·관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함



4. 과학영농교육체제 구축 및 센터 조성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고 부가가치 품목을 발굴하여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품목별 재배에 필요한 첨단 농업교육을 실시하거나 이에 관련된 교육정보를 제공함.
- 농업기술교육은 오프라인을 통한 현장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
- 지속적인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과학영농교육센터」로 발전시킴.

- 농업기술교육의 예

-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시설채소 및 화훼 등에 관한 각종 교육이나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또한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는 농업인 영농기술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시설채소 및 과수들에 관한 영농기술을 교육하고 있음.
- 각 시도의 57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표 5-10 > 국내 농업 교육기관

교육기관명 / 인터넷주소	주요 교육 내용
농업인 사이버학당 http://www.farmedu.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기초부터 인터넷 활용 교육. • 다양한 농업용 소프트웨어 및 농업전문 기술교육 까지 시간에 제한 없이 집에서 앉아서 교육
한국유기농업협회 http://www.organic.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법과 관련된 각종기술 및 정보를 제공
한국농업전문학교 http://www.kn.ac.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교육 • 농기계교육 및 현지순회정비 기술지원 • 농협등 유관기관 요원 등에 대한 영농교육

5. 「첨단벤처기술농단지」 조성

- 지역 첨단영농기술 보유 벤처기업의 실제농업을 통한 기술집목 및 기술실험의 장 제공으로 대전시를 첨단벤처 영농기술도시로 특화 육성
 - 토양개선에서 종자개량, 파종, 재배, 수확,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전과정의 일원화를 통한 첨단복합영농실현단지로 전국 최초 건설
- 단지구성 및 기능
 - ① 유기농 재배단지 : 농민 직접참여 영농
 - 대전의 도시특성에 부합하는 근교유기농 작목재배단지
 - 쌀 등 곡물류, 채소류, 딸기, 포도 등 특작 품목의 집중재배
 - ② 벤처영농 실험 및 교육단지 : 시 임대 운영
 - 참여벤처기업의 벤처농업기술 실험포로 활용 기술적용 및 개발
 - 단계별 영농기술의 B2B간 협업화를 통한 전과정의 기술연계 실험
 - ③ 유기영농 직거래장터 : 관광농업과 연계
 - 주말농장 개념의 소비자 직접 참여의 유기농단지 조성, 분야
 - 유기농단지의 관광농원화, 미래세대 참여의 장
 - ④ 직거래장터 : 관광농업과 연계
 - 소비자가 생산자를 찾아오는 신개념 유기농 유통의 장

- ⑤ 유기농작물 가공센터 : 기능성 쌀·음료 등 개발 가공
- 기능성 쌀, 음료 등 건강식품 가공, 판매로 유기농 참여농민의 안정적인 수익모델
 - 별도 센터 건립방안과 함께 현재의 농작물가공회사와 연계방안 검토

6.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서비스 기능 강화

- 농업기술센터 담당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로 기술지원 능력 향상
- 경영진단 및 컨설팅기능 강화로 농가 경영혁신 유도
- 신기술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조기확산 유도
-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상설교육 및 수출농가의 현장기술지원

7. 과학적 농장관리 프로그램 보급

- 농업경영, 작목별 생산 및 관리프로그램 보급으로 과학영농 실현 및 경영비 절감 도모
- 보급대상 : 전업농, 후계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개별농가중 경영장부 기록과 과학영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
- 보급프로그램 : 농림수산정보센터 개발 ‘농가경영장부’ 등 15종
- 보급수량 : 1,000개(영농형태에 따라 지원)
- 사업비 : 20,000천원(1,000개×20,000원)

제6절 농산물유통 시스템 개선

1. 첨단농업기술 사업화 방향

가. 추진목표

- 농산물 적정생산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 유통시설 확충 및 다양한 직거래 활성화
- 유통정보체계 확립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

나. 사업화 방향

- 농산물직거래 물량의 획기적 확대
- 공영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
- 소비자의 안전식생활 보장

2. 다양한 유통시스템 구축

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의 확대

- 생산물의 직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지속적으로 확대
- 「농산물직거래센터」 설립
 - 농산물 직거래 물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광역적인 상설 직거래장터 설립
 - ※ 2005년까지 2개소, 2010년까지 5개소

〈농산물 직거래 거점의 적정입지〉

- 농산물 직거래 거점의 적정입지는 다른 마케팅 믹스 요소와 지역여건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직거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음

농민시장	인구 10만~25만의 도심지역
노변판매장	평균 시속 50마일(80km)이내의 도로변

- 대청호를 잇는 미호-삼정동 지역을 중심으로 과수생산농가의 편익을 위한 직거래 사업을 지원

나. 다양한 농산물판로 개척

- ‘우리 농산물을 우선 먼저’ 라고 하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노력
 - 아파트 등 도시내의 인구밀집 지역에 자매결연 사업을 통한 주말 농민시장 등을 설치 운영하고 다양한 판로를 개척
- 농산물 판로개척은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소비자 생산참여 수확 : 계약재배, 과수임대, 고객수확
 - ② 생산자→소비자 직접 전달 : 요식업체 및 장기 소비계약 납품
 - ③ 직판장 운영 : 농민시장, 노변판매장
 - ④ 고가 농산품 주문판매 : 통신, 인터넷 판매

< 표 5-11 > 농산물의 판로개척사업 유형

사업유형	특 징
요식업체 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요식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을 농가에서 직접 공급 • 신속한 배달과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 • 작부체계의 다양화로 지속적 공급체계 구축
고객수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의 전원생활 체험 욕구를 충족 • 농가의 수확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 • 지역 또는 농장 고유의 이벤트행사와 연계 • 수확기의 기상여건에 따라 사업성이 좌우
과수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기 이전에 도시민에게 과수를 임대 • 생산과정에서의 영농비용은 농가부담 • 생산실패의 위험과 수확은 임차인 책임
계약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를 구성하여 회원으로부터 출자금을 조성하고, 농가와 특정품목의 생산계약 체결 • 계약가격은 모든 생산비용과 농가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수준
통신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에 비해 가치가 큰 품목이 주 대상 (대표적인 품목은 종자, 건조·가공제품) • 광고에 대한 고객주문률은 아주 저조하며 다른 판매방식과 병행 추진
농민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가 생산위험과 유통위험을 모두 부담 • 소비지에 위치하여 시장가격과 경쟁적이지만, 약간 높은 것이 일반적 • 도매시장에서 판매 불가능한 규격외품의 판매도 가능 • 참여농가는 점유면적과 사용기간 및 시간에 비례해 시장수수료를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판촉·홍보비용은 참여농가가 부담
노변판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인건비 절감, 판매상술이 성패를 좌우 • 상품구색을 위해 자가 생산물과 함께 타지역 또는 다른 농가의 생산물도 취급 • 노변판매장의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위치, 시설,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함

다. 원활한 유통구조 확보 및 유통정보 공급체제 정비

-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구조 확보를 위해 저온저장고 설치, 농산물 수송차량 (냉장탑차) 지원, 규격출하 지원, 지역특산품 포장개선사업 추진
 -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 : 2005년까지 15개소, 2010년까지 40개소
- 다양한 농산물 소비홍보를 통해 수요창출을 모색하고 특히 생산 및 출하정보 관리와 정보공급 체제를 정비
- 공영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도매시장 전자경매제」 확대
 - 2005년까지 공영도매시장 전체 법인 시행
-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정보센터를 설치·가동하고, 수집된 정보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재배 및 생산기술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에 협조체제를 마련

< 표 5-12 > 농산물 유통정보 제공기관 및 주요 업무

기 관	주 요 업 무
농산물유통공사 www.afmc.co.kr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가격, 식품박람회, 사이버전시관, 수출입정보, 무역정보, 물류정보 및 표준화 정보
농협강원지역본부 www.nacfkw.co.kr	농산물 가격정보 안내
농협하나로클럽 www.kacm.co.kr	농산물 물류센터, 하나로클럽 소개, 농산물 시세, 가격 정보, 시황, 상품 구매안내 농산물 판매. IE 전용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www.affis.net	농산, 축산, 수산, 임산물, 원예 가격정보
가락시장 www.garak.co.kr	농수산물 경매가격 및 물량 관련 유통정보, 실시간 농수산물 경매상황 정보 제공
농업전문사이트 www.farm21.co.kr	출하안내, 농산물유통정보, 경매업무, 농협공판장 관련 정보 등 소개
농협 www.nonghyup.com	농산물 실시간 가격정보

라. 특산물에 대한 판촉활동 강화

- 지역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유리한 가격설정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 특산물에 대한 판촉홍보를 강화
 - 지역 특산물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마련하여 타지역 소비자나 관광객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유성온천과 계룡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계절 방문하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관광객들에게 유성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상설 전시장 및 체험 이벤트 등과 같은 홍보 전략 수립.
- 저온상태에서 장기 저장 시에도 농산물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상품의 이미지에 알맞은 고품격의 포장재 개발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지역 농산물 관광축제

- 축제시기 : 한밭문화제, 유성 온천축제, 신탄 벚꽃축제, 사이언스 페스티벌 등 지역 축제시 지역의 특산품 집중 출하, 지역농산물 관광축제 병행 추진
- 축제내용 : 농산물 판매, 품평회, 시식회 등 이벤트행사 진행

마.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 농산물의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규격화함으로써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유통의 현대화 실현
 - 지원대상 : 농산물을 규격 출하하는 농협, 품목별 생산자조직, 작목반 등
 - 지원내용 :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등 포장재비 지원
 - 지원비율 : 개별농가와 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

소비자의 안전식생활 보장

-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 강화 및 농산물 품질인증 확대사업 추진
-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강화 및 농산물 리콜제 시행
 - 농산물 원산지표시 2005년까지 25개 품목, 2010년까지 40개 품목

3. 농산물 전자상거래(E-Mart) 구축

가.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국내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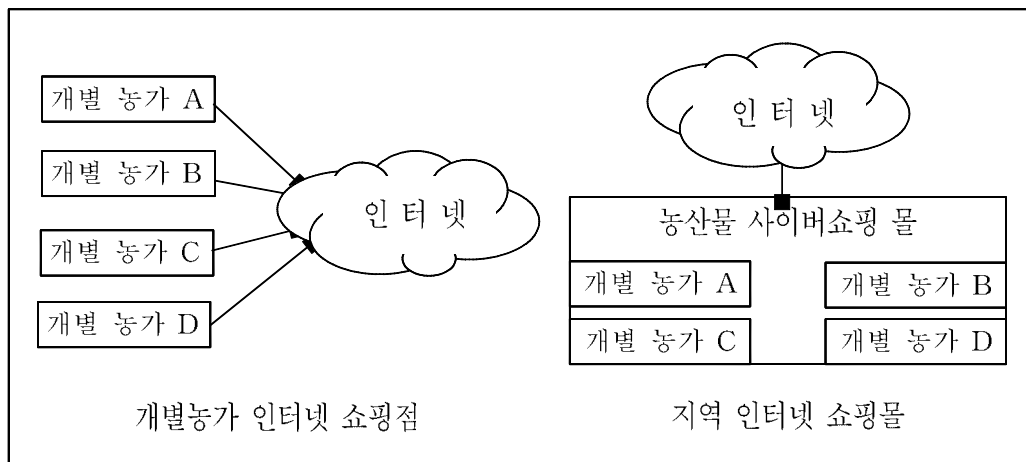
- 인터넷을 통하여 생산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한 마케팅 효과와 유통비용을 제거하여 농가소득 증진 및 새로운 판로를 개척함
- 현재 국내에는 농업인 직거래 사이트는 60~70여 개로 추산되며 품목은 버섯, 홍화 등 특용작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개별 생산자로서 대응하기 어려운 물량, 품목문제를 고려하여 품목별 전문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곳도 있으며 지자체, 민간유통업체의 쇼핑몰에서도 식품류를 판매하고 있어 개별생산자와 품목 구성이 상이함.

- 2001년 7월 현재 사이버쇼핑몰의 농수산물 매출액은 53억 7,30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자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통계청 '5월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
- 일본의 경우, 직거래 품목은 유기농산물 등 일반시장에서 구입하기 어렵고, 기존 시장과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는 약 270여 개 정도로 추산되며, 연간 매출액 중 전자직거래 판매비율은 아직 높지 않음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의 물류관리, 배송관리 및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제반 사항 및 시설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한 관계 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됨
- 또한 소비자의 신뢰확보, 결제시스템의 보안, 배송체계의 확립, 물량 대응, 합리적 가격결정, 상품개발 및 시장조사, 다양한 정보제공과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의 적극적인 홍보 등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함

나. 생산자와 소비자거래(B2C) 형태 구축

- 농산물 생산은 기상 등의 요소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하고 가격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 과다한 물류비용을 초래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신뢰성 부족과 유통 중 부패의 위험이 있으므로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거래 (B 2 C) 의 형태로 발전하여야 함
- 개별농가의 홈페이지를 통한 소비자와의 직거래는 인간적인 교류를 통한 신뢰도 구축에는 바람직하지만 상품의 다양성과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
 - 생산자와 소비자 거래형태에서는 농산물의 판매와 더불어 고품에 대한 향수를 만족시키는 농촌의 문화를 상품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또한 일반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차별화 전략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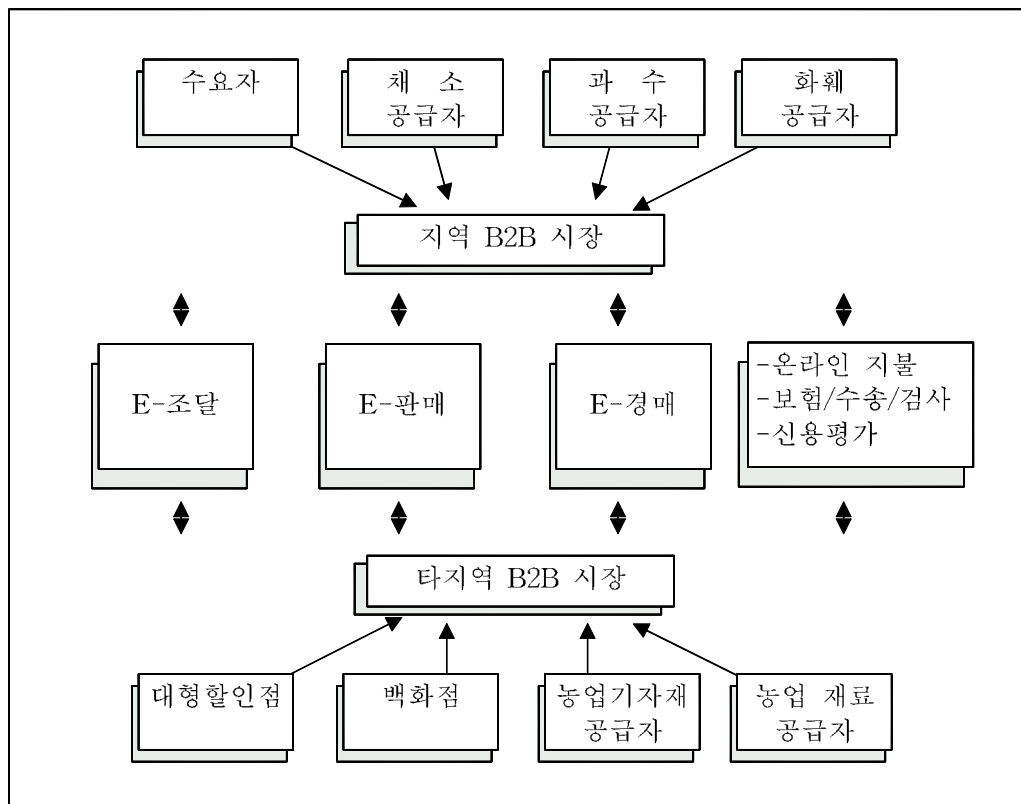


< 그림 5-4 > 통합 쇼핑몰 구축 예시도

- 지역의 개별농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Shopping Store)을 통합·연결하여 운영하는 통합 「지역농산물 통합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함
 - 를 통해 생산자 단체 쇼핑몰간의 결제, 인증, 배송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중간비용을 줄이고 전자상거래의 효율성 제고
- 이와 병행하여 정부재투자기관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2000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통합 쇼핑몰(www.a-peace.com)에 지역의 개별농가가 입점하여 운영
 - 이 경우 농산품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배송 등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다. 기업대 기업거래(B2B) 형태 구축

-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는 개별농가의 시장교섭력과 홍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생산자단체(농협, 구청), 혹은 개별농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생산자조직과 대량 실수요 업체인 백화점 또는 대형 할인매장 등이 전자상거래의 중심이 되어 대량유통을 도모하는 기업 대 기업(B2B)형태의 거래망을 구축하는 것이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음
- 국내 농산물 B2B 전자상 거래의 예 : (주) 코리아 8848
(<http://www.korea8848.com>)



< 그림 5-5 > 농산물 B2B 전자상거래 체계도

라.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행 조건

- 작목반 등 생산자의 생산·유통 조직을 육성하고 공동출하를 확대하여 소규모 영세농가의 불이익을 극복,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을 제고함
-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에서 포장 규격화는 물론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함
 - 포장 규격화는 상품의 보존성을 높여주고 물류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 등급화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가격 효율성을 높여 주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함.
- 저온유통 체계를 도입하여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손상 최소화.
- 신뢰할 수 있는 유통 정보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전국권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4. 다량 소비처와의 직거래 확대

가. 백화점 및 할인매장과의 직거래 체계 구축

- 지역내 다량 실수요 업체인 백화점 또는 대형 할인매장 등과 계약을 통해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나. 다량소비처의 직거래 체계 구축

- 농산물의 다량소비처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함

다. 전자자료교환(EDI) 시스템 구축

- 다량소비처와 직거래를 하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자료교환(EDI) 시스템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5. 공동 유통체계 확립

가. 생산지 규모 확대를 위한 생산자 단체의 광역 및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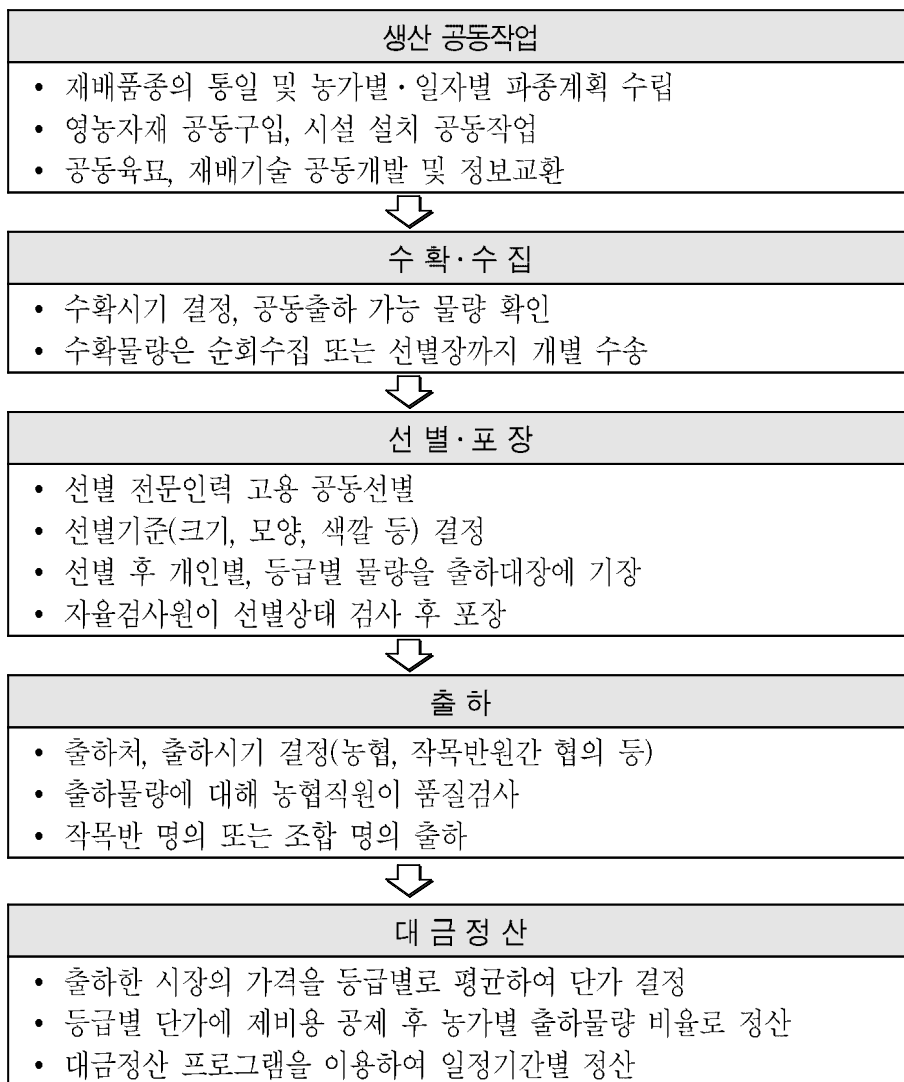
- 외국산 수입농산물과 국내 생산지간 경쟁에 대응하려면 출하규모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며, 육묘와 생산의 분리를 통한 생산물량의 증대와 인근 생산지간의 연계재배 등을 통한 생산지의 규모 확대를 도모해야 함.
- 생산자 단체의 광역·합병과 같은 제도개편과 아울러 대형화된 생산자 단체간에 생산과 출하를 협정하는 등 생산지 제휴도 필요함.
- 또한 생산과 출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
 - 광역유통거점의 정비와 상표통합
 - 광역화된 작목별 생산자 조직의 육성

나. 공동계산제 구축

- 다수의 개별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주별이 아닌 상품의 등급별로 구분

관리, 판매하여 그 등급에 따라 비용과 대금을 평균하여 농가에 정산하는 제도 구축

- 공동계산제 활동범위는 주로 농산물 수확이후의 단계인 수집, 선별, 출하, 대금정산까지의 과정을 작목반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 공동계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품종통일, 반원간 재배기술 수준의 평준화를 통하여 맛, 크기, 색상 등 균일된 품질이 생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공동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그림 5-6 > 공동계산제 추진 절차

- 공동계산제 실시 형태는 품목의 특성, 선별, 출하 등 작업형태, 조합, 작목반의 사업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대전시의 단위 품질인증제의 도입과 농협 및 행정기관이 주체가 된 지역특산품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산지유통센터를 설립

제7절 수출농업구조 구축

1. 지역농산품 수출의 특성

- 과거 포도(델라)를 일본지역에 농산물유통공사와 협조하여 일부 수출하였으나 수송비 부담 등 가격경쟁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업기술센터의 지원하에 오이, 방울토마토, 버섯, 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시범적인 사업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출거래선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품질 제품의 생산, 공급체계가 확보될 경우 대일본 시장으로의 수출 가능성이 충분함
- 체계적인 수출 프로그램 미비로 일회성 수출에 그침

2. 지역농산물 수출증대 사업

가. 대일본 시장 수출촉진

- 신규 수출유망품목 개발, 기존 수출품목 세분화 등을 통해 수출품목을 다양화하여 틈새시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와 대량 수요처에서 계약재배를 통한 산지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대형 소매유통업체와의 직수출을 확대
- 수출품목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약-생산-수출'의 전과정에 걸쳐 컨설팅 강화 및 품질고급화 도모
- 품질등급과 무관하게 전량 수출계약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품질이 떨어지는 물량은 내수로 전환하여 수출품 고급화와 고가격 수출로 유도

나. 농산물 수출촉진단 구성

-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 대해서 지역 농산물의 수출대책을 모색하여 농업 및 무역관련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고, 대전시 차원의 농산물 수출 촉

- 진단을 결성하고 판로를 적극 개척해 나감
 - 국제식료품 및 화훼박람회 참가를 통한 특별 판촉행사 추진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유망 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
- 이와 함께 시, 농협, 농산물유통공사 등을 포함하여 농산물을 수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어드바이스기구를 대전농업기술센터 산하에 발족
 - 수출전략 세미나, 설명회 및 해외판촉 등을 기획하여 농산물의 수출역량을 촉진

다. 국내외 다양한 정보전달 체계 수립

-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해외농산물 거래동향 및 각종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수집, 농가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전달 체계 수립
- 농산물 수출프로그램 개발 구축
 - 건실한 무역업체 알선, 해외바이어 초청사업 추진
 - 수출전용 인터넷 구축, 홍보자료 제작, 수출정보 수집·교환 등 수출정보 시스템 구축

라. 수출농산물 생산회원제 운영

- 수출을 위주로 생산하는 수출주력 생산조직체를 육성하고, 고품질 생산,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
- 수출 농산물 생산회원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공동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확대
- 수출업체 및 외국 현지거래처와의 계약재배 확대로 생산·출하 구조를 수출체제로 전환

마. 외국 자매도시와의 농산물 수출 증대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외국 자매도시와의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인적교류 및 기술·정보교류 증진 사업을 전개

제8절 축산업 육성

1. 축산업 육성 기본전략

-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가축사육 기반의 정비 확충 및 집단화를 통하여 축산업 구조개선, 축산업 전업화,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유도
- 가축분뇨의 수질오염 방지와 지원활용을 위하여 독립된 축산단지 조성,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
- 상대적으로 한우에 비해 환경오염 부담이 많은 양돈을 지양하고 축산농가의 의견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우사육 전환 유도

2. 축산업 육성사업

가. 한우사육 지원

【한우사육의 문제점】

- 사육규모의 영세, 사육시설의 낙후, 한우개량체계 미흡 등으로 생산성이 낮고, 저질 조사료인 볏짚을 주로 이용
- 농후사료의 의존도가 높아 사료비를 과다 지출하는 경향이 큼
- 유통체계의 미비와 육류등급제의 미정착으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

【한우사육의 대응전략】

- 사육단지 집산화, 기술개발 보급을 통한 사육규모의 확대, 자동화 사육시스템 도입, 협업경영 등으로 생산비 절감 유도
- 고급육 생산기술의 개발보급, 브랜드화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한우고기 소비 촉진

나. 「한우 전업경영체」 육성

- 일정규모 이상 축산 전업경영체 집중 육성으로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 조성
-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확보

- 신규농가 육성보다 기존 준전업농을 전업경영체로 육성

- 전업경영체 규모 : 한우 50두 이상
- 준전업경영체 : 한우 30-50두

- 전업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영·기술 컨설팅을 지원, 경영혁신 도모
 - 생산, 유통, 사육, 환경 등 분야별 전문화된 컨설팅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기술 습득 기회 제공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시설설치, 개·보수 및 경영자금 등을 일괄지원
- 대상지역 : 한우생산 농가가 집산화된 지역 중 한우집산화단지 조성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육성

「한우 집산화 단지」 조성

- 단지규모 1~3만평 규모로 한우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 분산해서 조성
- 고급한우 브랜드화 추진
- 사업예정지역 : 기성지역(3만평), 신동지역(2만평)
-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병행 추진 : 보조, 융자, 자부담 형태 자금충당

다. 축산공해 대책 마련

- 축산분뇨는 농촌의 가장 심각한 수질오염원으로 분뇨처리시설을 확충, 수질 보전과 축산공해 방지, 분뇨의 퇴비화, 액비화를 통한 자원화
- 권역별 자원화 처리시설 집산화, 처리시설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 소규모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권역별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농가 인식부족으로 소사육을 조사료 생산이용보다 손쉬운 배합사료 위주의 사양으로 생산비 증가, 부산물을 이용한 자가사료 생산이용 저조
-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 재배단지 조성, 기계화 촉진, 종자대 및 비료대 지원
 - 답리작 377천원/ha, 전작 180천원/ha
- 볏짚암모니아 처리 : 암모니아가스 주입비 지원(96천원/기당)

- 기성초지의 사후관리 강화로 우량초지화 하여 초지 잠식방지
 - 초지보완 및 기반조성 : 종자 및 비료대, 목책시설, 장비구입 지원
 - 우량초지 타목적 사용 및 전용 억제
- 농가자가 배합사료 생산이용 확대
 - 제조장비 구입 및 제조시설 자금 지원
 - 수입사료 원료공급, 부산물 공급 및 구매 알선

마. 축산분뇨 활용 「유기질 비료공장」 설립

- 한우사육 집산화단지내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조성
 - 퇴비발효저장고 설치
 - 축분수거기, 배일러, 벧집수거기, 사료배합기 등 확보
- 생산된 비료를 지역내 유기농가에 우선 공급

제9절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1. 농촌문화 진흥과 정보화

- 농촌문화 진흥
 - 각종 문화 관련 시설의 확충,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 다채로운 지역문화행사의 활성화, 지역문화 전승 주체의 육성
 - 다양한 자연, 문화 자원의 발굴, '문화네트워크'의 구축
 - 농협의 농촌문화복지 기능 강화
- 정보화 개선
 - 초고속통신망의 조기 확충 및 농업인의 정보 접근기회의 확대
 - 정보화 활용 인력의 육성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2. 여성 및 노인복지 증진

- 여성복지 개선
 - 관련 예산의 확보 노력, 농가도우미 제도의 개선 및 확대
 - 여성농업인센터의 발전 및 확산
 - 농촌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추진
 -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시스템 구축
- 노인복지 개선
 - 기존 프로그램의 농촌지역의 확산 및 농촌노인의 소득활동 지원
 -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 사업의 확대
 - 경로당의 다목적 활용

3. 보육 및 교육 서비스

-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개선
 - 농촌동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
 - 농촌 보육아동 및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 농협의 보육사업 참여 활성화

- 초·중등교육의 개선
 -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농업촌 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확대
 - 농촌 지역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
 - 특기, 적성교육의 활성화

제6장 투자사업내역

【명품·특작생산증대 분야】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단기	중기	장기	
지역우수명품 차별화지원	5개 분야	○	○	○	1,600
명품브랜드명 지정사업	"	○	○	○	1,200
우수명품·품질추천제	1건	○	○	○	160
GMP방식 농산물생산지원	10개 분야		○		2,000
지역명품 홍보관 설치	1개소		○		400
특화작물 선정 육성	13개 작물	○	○	○	2,600
공동육묘장 조성	2개소		○	○	1,800
영농법인체 설립	2개 법인		○	○	6,000
절화류 전문생산단지 조성	1개 단지		○		1,500
계					17,260

※단기 : 2003~2004년 사업, 중기 : 2005~2007년 사업, 장기 : 2008~2010년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단기	중기	장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립	자치구별 1개소		○		400
소비지직판장 설치	"		○		250
친환경농산물 전문택배사업	1건		○	○	1,000
환경농산물저장가공시설설치	5개 시설		○	○	750
유기농산물전시·판매전개최	연 4회		○	○	400
유기농산물 판매코너 설치	자치구별 1개소		○		400
유기농법 가족농단지 조성	"		○	○	1,500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육성	50농가	○	○	○	1,000
농촌오염실태파악모니터링 체계 구축	1건		○		800
환경농업학교 설치	1개소		○		250
계					6,750

【그린투어리즘사업 확대추진 분야】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단기	중기	장기	
그린투어리즘 사업	자치구별 1개소	○	○	○	1,500
梨花축제 개최	1건	○	○	○	350
유성배 테마로드 조성	1식		○		1,500
산내포도축제 개최	1건	○	○	○	350
주말학습농장 조성	자치구별 1개소		○		750
친환경영농시험단지 조성	1개 단지		○		300
토종식물재배단지 조성	1개 단지		○		450
민박마을 조성	15 지역		○		2,500
계					7,700

【생산기반의 정비 및 현대화 분야】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단기	중기	장기	
농업용수개발	-	○	○		2,000
관개시설 설치	-		○	○	1,000
기간농도망 신설정비	-		○	○	1,500
저온저장고 환경관리자동화 시스템 도입	-		○	○	750
농업정보시스템(AIS)구축	1식		○		500
계					5,750

【첨단농업기술 개발보급 분야】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단기	중기	장기	
농업 산·학·연 구축	-	○	○	○	2,400
특작기술센터 설립	1개소		○		1,500
과학영농교육센터 설립	"		○		800
첨단벤처기술농단지 조성	1개 단지		○		1,500
과학적 농장관리 프로그램 보급	1식	○			20
계					6,220

【농산물유통시스템 개선 분야】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단기	중기	장기	
농산물직거래센터 설립	자치구별 1개소		○	○	800
농산물 판로개척	-	○	○	○	240
농산물저온유통기반 확충	40개소	○	○	○	2,000
지역특산품 포장개선	13개 분야	○	○	○	1,040
지역농산물 관광축제	4개 분야	○	○	○	640
농산물규격출하 지원	-	○	○	○	1,820
지역농산물통합쇼핑몰 구축	1식		○		300
공동계산제 구축	13개 분야		○	○	800
계					7,640

【수출농업구조 구축 분야】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단기	중기	장기	
대일본시장 수출 촉진	-	○	○	○	56
국제식료품·화훼박람회 참가	연 2회	○	○	○	112
농산물 수출프로그램 개발 구축	1식	○	○	○	105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연 1회	○	○	○	210
수출유망 농특산물홍보책자 발간	격년 1회	○	○	○	240
계					723

【축산업육성 분야】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단기	중기	장기	
한우전업경영체 육성	-	○	○	○	2,400
한우집산화단지 조성	2개 단지		○		1,400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개 지역		○	○	800
유기질비료공장 설립	1개소		○		350
계					4,950

※ 총 투자사업비(2003~2010) : 56,993백만원